朝鮮日報
夕刊
二十五日(土)
本紙朝夕刊二十二圓

다다넬스의再武裝要求를 佛政府受諾決定
로잔느條約八個國政府間의協議를準備
伊政府의態度는未決

【巴里二十四日發同盟】佛國政府는 土耳其政府의海峽 再武裝要請을 受諾하기로 決定하고 二十三日 佛國外務省은 巴里駐箚土耳其大使다비아스氏에게 回答正文을 手交하엿다 佛國政府의 回答要旨는 左와如하다

一、佛國政府는 다다넬스海峽再武裝에 關한 土耳其政府의 通告에 關하야 一九二三年 海峽制限에關한 條約上 八個國政府間에 協議를 開始할意思가 有하다

一、但右協議의 時期及場所其他協議手續方式에 關하야 土耳其政府의 通告를 相互詳細히 檢討한後 此를 決定하기를바란다

【羅馬二十四日發同盟】英、佛、蘇等土耳其政府로부터 로잔느條約改正要請을 接한 各國政府는續續受諾回答을 發하고잇는데 伊太利政府는 依然愼重을 期하야 아직諾否의 어떠한 回答도 發하지안는다 政府當局은 右事實을 確認하고 二十四日午後 左와如히 言明하엿다

土耳其政府의 海峽再武裝要請에 對하야 伊太利政府는 아직 何等態度를 決定치안엇다 政府는 海峽通過의 自由를保障할必要上 回答에 압서 特히 愼重考慮를 要할것이다

로잔느條約改訂 商議開始受諾 駐土大使에訓電

【東京電話電通】土耳其政府는去十三日駐日大使겜비氏를 通하야 다다넬스海峽非武裝에 關한로잔느條約改訂商議開催를 要望해왓스므로 外務當局에서는 右를應諾하기로 方針을 決定하야二十四日의 閣議에諮하엿든바 異議업시 決議되엿다 따라서 有田外相은 德川駐土大使에 訓電을發하야 土耳其政府에 提議應諾의旨를 回答케하엿다

獨總統의要求를 英保守黨議員들은『노』
植民地再分割은끗까지反對
委統領監視團을組織

【倫敦二十四日發同盟】保守黨下院議員아메리氏以下 保守黨下院議員은 히틀러總統의 植民地再分割에關한 要請에 反對하야 어데까지 英國委任統治領保持의 貫徹을 決定하고 二十四日 委任統治領監視議員團의 結成을 發表하엿다 右議員團은 아메리氏를團長으로 結局에잇서 委任統治領에對한 英國主權의 確保를 圖하리라고 觀測되다 委任統治監視議員團의 目的은 左와如하다

一、英國의 委任統治領을 他國에 讓渡하는데 反對하고 어데까지 이에對한完全한 宗主權의 確立을期함

一、委任統治領에잇서서 政情을監視하고 英國의 權益保護를 期할

右에對하야 委任統治領監視議員團의 結束에當한 某有力議員은 말하기를 팔레스타인은英國植民에 開放된 唯一의 委任統治領이다 今日과如히 騷擾가頻發하는데 對하여는 重大關心을 가지지안흘수업다 獨逸人은 팔레스타인에 對하여垂涎하나 我等은 絶對로 此를 나치스에게 引渡하지안토록 日常監視할것이다

宇垣總督參內 朝鮮統治狀況奏上

【東京電話同盟】宇垣總督은 二十四日 午前十時半에 參內하야 同十一時 天皇陛下께 拜謁하고 朝鮮治安狀態及 不祥事件當時 朝鮮에 何等動搖의 비치업섯다는것과 一般産業經營이 逐次堅實한 發達을 遂하고잇다는것、農山漁村의 振興及 心田開發의 强化等이 着着實行되고 他面 敎育振興普及은 今年度로써 一面一校의完成을 보게되엿고 兒童의 就學率도 過去二十五年 二割五分에 不過하엿다는것이 今後十年間에 이를 五割强으로進展식히려하고 또 滿洲에 大量이오 또 統制잇는 移民을 行하기爲하야 拓殖株式會社를 設立하고 一方 産業開發 軍事上必要에 基하야 南朝鮮의 港灣二、三의 修築과 南朝鮮中央部를 貫通計畫에 對하여도 關係當局과 交涉、諒解를遂하야 特別議會에 提出하게 되엿다는等 最近의 朝鮮事情에 對하야 委曲奏上하고 御下問에 奉答한後 御前을 退下하야 다시別室에서 湯淺內府 松平宮相 鈴木侍從長과 會見하고 午後零時 二十五分 退出하야 四谷私邸로 入하엿다

新內閣財政政策의動向
國政一新으로 各機構를修正 (一八)

徐 椿

今般所謂中에서 『財政計畫은 卽、國防計畫을 意味한다。』

의 一句은 日本財政經濟政策의 今後의 轉換方向을 示唆하는 가장 含蓄만흔 一句로서、이一句가 무엇을 意味하는가를 究明함에 依하야 우리는 非常時日本의 政治經濟兩方面에 亘한 機構修正의 不可避的情勢를 알수가 잇다。

廣田首相이 親任式當日、記者團에 對하야 試한 談話中에는 『政府와 軍部와는 今後에도 緊密히 握手하야 서로 協力하야 現下의 時局에 對處해갈수잇슬것을 自信한다。』

고 햇고、또 寺內陸相은 入閣의 條件으로

一、大陸政策의 遂行
二、軍備의 充實
三、國政一新

의 三項目을 國策의 中心으로 할것을 要請햇다。그리고 陸相의 이말은 軍部要望의 基準政策四項目을 다시 要約한것으로서 三項目과 四項目과의 間에는 數的要約의 差는 잇슬지언정 實質的相違는 업는것이다。

軍部側의 이 要求를 快하야 馬場藏相은 親任式當夜의 聲明에 잇서서

一、對滿政策의 遂行
二、國防의 充實
三、農山漁村經濟의 更生

의 三政策을 言明햇다。

寺內陸相의 三項目과 馬場藏相의 三政策은 그 表現한바 文句에는 多少 相違가 잇스나 그 意味하는바 內容에 잇서서는 秋毫의 差가 업다는 一點에는 特別한注意를 加할 必要가 잇슬것이다。卽、『大陸政策의遂行』이라고 하나『對滿政策의遂行』이라고 하나、이 境遇에 잇서서는 範圍의 廣狹을 論할것이 아니라、全然 同一한 內容을 若干、文句를 달리하야 表現한것으로 보아야 올타。

다음、第二項目은 文句까지도 꼭 갓고、第三項目에 잇서서는 寺內陸相은 此를『國政一新』이라고 햇고、馬場藏相은 此를『農山漁村의 更生』이라고햇스나、此亦同一한 內容을 가진 말로서 다가치『國民生活安定』이라는 意義를 表現한것이다。故로 이境遇에 잇서서는 軍部四項目에서는 國民生活安定이라고한것을 寺內陸相은 此를 國政一新이라고 表現햇고、馬場藏相은 此를 農山漁村의 更生이라고한것이다。勿論、三語間에 範圍의 廣狹이 잇고、또强調點과 留重點이 다른것으로 解釋할수가 업다는말이 아니나、또한 各當者들이 亦是、意識的으로 範圍、强調、留重의 三點을 달리하야 表現하엿슬것도 事實일것이나、그러나 이가운데서 政策遂行上、指導的勢力을 가진者는 軍部로 볼것이니까、三語는 結局『國民生活安定』의 一語에 歸一될것이다。

이제 이 三語가 갓다는것을 좀더 明確히 밝키기爲하야 우리는 去三月十三日의 軍部發表四項目中에서 國民生活安定에 關한 部分만을 摘取해보면 如左하다。

◆國民生活安定

1、政治機構의改革
內閣制度의强化
無任所大臣의設置
內閣調査局의擴大(審議會廢止)
貴衆兩院、樞密院의權限縮少

2、財政機構의改革
資稅의均衡을 實現하도록 稅制를 根本的으로 改革
豫算會計의整理
官業의合理化
賣議그他新制度에 依한 國庫收入의增加
鐵道益金의一般會計繰入增加、低金利政策의徹底

3、産業機構의改革
國家統制의强化(特히 重要産業)
貿易의振興
海外에잇서서의資源確保
輸出組合、工業組合、商業組合의 强化
中小産業、農山漁村의經濟的更生(農村電化、中小工業의 地方分散)

右摘取를 보면 알바와 가티 軍部意中의『國民生活安定』은 實로廣範圍의 內容을 가진것으로서 政治、財政、産業三機構에 一大修正을 加하게가지고야만 비로소 實現할수잇다고 軍部는 본것이다。이가운데서 政治에 關한部分만을 强調하면『國政一新』이 될것이요、財政及産業에 關한部分만을 强調하면『農山漁村更生』이 될것이나、그意味하는바는 다가치 國民生活安定의 一語에 歸할것이다。(未完)

伊軍、에首都入城豫想 外交團의態度協議
伊軍司令官이外交團의特權認定할時는 그대로滯留키로決定

【東京電話同盟】二十四日在에디오피아鈴木代理公使로부터 外務省에入한 報告에依하면 아디스아베바外交團會議는 二十二日에 開催되엿는데 伊太利遠征軍이 首都에 入城할 境遇 外交團은 如何한 態度를 取할것이냐는 問題에對하야 協議를 遂한結果 에디오피아 政府機關의移動如何에 不拘하고 伊太利軍司令官이 各國外交團의 特權을 認定하야 在留民의 保護에 當할것을 公約할時에는 에디오피아에 머물러잇기로 決定하고 伊太利軍司令官의 態度에 依하야 第二段工作을 取하기로하고 散會하엿다

아디스아베바 全然死都化!

【아디스아베바二十四日發同盟】伊太利遠征軍의 아디스아베바肉迫을 阻止하기爲하야 首都靑年은 率先하야 前線으로 出動하엿다 他方 婦女子는 全部附近村落에 避難하야 市內는 一切閉店되엿는바 아디스아베바一部外人居住地域을 除하고는 全部死都로化하게되엿다 殘留十四個國 外國人總數는 一千五百名인바 英國以下 九個國公使館에各其 分散하야、避難을 完了하고 收容되엿다 日本人、六名도 公使館에 收容되엿다 目下 各國公使館은 地下避難設備完成에 忙殺되여잇다 佛國公使館附近에 開設된 佛國人村과 如한곳에는 벌서 雜貨店、食料店이 생겨고 米國人商人은 獨特한 酒場을 開店하고 避難外人吸收에 備하고잇다

一部割讓에不止 에全土征服敢行?
伊皇帝를에國王으로推戴乎
伊國政府의最高方針

【羅馬二十四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아디스아베바陷落이在邇한 今日 이것을機會로 에디오피아統治方針에對하야 考究中이라고 解釋되는데 一說에依하면 伊太利는 에디오피아의 國際管理或은 領土의 一部割讓에 不滿하고此際 一擧에디오피아全土征服을敢行하야 國王빅토르·에마누엘三世陛下를 에디오피아國王에 推戴하리라고한다 但 眞否는 判明되지안는다

에國休戰提議說 政府는否定

【아디스아베바二十四日發同盟】에디오피아軍은 近近伊太利軍總司令바도리오元帥에게 軍使를 派遣하야 休戰을 提議하리라는 報道가잇는데 에디오피아政府는 右報道를 否定하야 二十四日左와如히 言明하엿다

에디오피아軍이 바도리오元帥에게 軍使를 派遣하리라는 報道는 伊太利側의 宣傳으로事實은全然無根이다 에디오피아軍의 態度는 首都가 陷落되여도 最後의 一兵이 너머질때까지抗戰

伊機二國나 偵察飛行

【아디스아베바二十四日發同盟】伊太利空軍의 ...機는 二十四日早朝 前後二回에亘하야 아디스아베바 上空에나타나 偵察飛行을 行한後 北方으로 飛去하엿다

北中武官會議
二十六日天津에서開催하야
北中問題全面的檢討

【北平二十四日發電通】北中駐屯軍參謀長 永見大佐는 關東軍參謀長會議에 多田司令官代理로 列席한後 歸還하야 軍首腦部와 北中問題의 全面的檢討를 거듭하고 中央側으로부터 今後 北中工作에 關하야 重要指令을 受하야가지고 二十三日歸任함으로 來二十六日 天津에서 北中武官會議를 開催하기로 되엿다 이때문에 北平의 松室少將 今井駐在武官 濱田少佐等은 二十五日赴津하고 其他의 武官도 이미 天津에 參集하엿잇다 同日은多田司令官 永見參謀長을 中心으로 參謀長으로부터 中央의指令을 傳達하고 松室少將을 爲始하야 各武官으로부터 各其現地情勢를 報告하고 北中對策의 主要協議를 行할터이다

朝滿郵便交換 五月부터開始

【新京廿四日發同盟】朝滿國境郵便物交換은 滿洲國交通部와 朝鮮總督府와의 間에서 過般來 協議를 進捗하고잇는데 마침내 來五月一日부터 實施하기로되엿다 從來 朝滿間의 郵便交換은 安東局을 通過하엿기때문에 交通이 不便한 地方은 郵便의 配達이 非常히不圓滑하엿든것이 今回國境의 長白 惠山 臨江 中江鎭 輯安、滿浦鎭等地에서 國境直通郵便物의 交換을行하고 다시 準備가 完了되는것을기다려 小包郵便等의交換도 開始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右六都市外에 漸次交換局의 數를增加하야 從來의 不便을 一掃할터이다

獨逸、世界最大의 空襲避難所完成
全國에地下室를構築

【伯林二十四日發同盟】獨逸航空省은 일긔民間團體의 防空協會를 動員하야 國內各地에 敵機가 空襲할 境遇의 避難場으로 地下室을 構築케하고잇는데 最近 伯林의 商業中心地알렉산더廣場에 全國最大의 地下室을 完成하엿다한다 이地下室은 如何한 爆擊에나 忍耐할수잇는것으로 世界最大의 空襲避難所라고 稱한다

蘇聯側無誠意로 第二段工作
外相對北洋漁業策

【東京電話同盟】前途憂慮의 日蘇漁業條約에 對하야 日本政府는 二十三、四兩日에亘하야 外務省에서 官民協議會를開催하고 出漁에 對한 妥協을遂하고 日本漁船의 保護取締에 關하야遺憾업시 方策을 決定하엿다 日本政府의 根本態度는 萬一莫斯科에서 行할 改訂交涉이 蘇聯의 無誠意한 態度로 不調에 終了된境遇에도 今年度에北洋出漁는 現行條約에 依하야 確保되여잇슴으로 莫斯科交涉의如何에 不拘하고 今夏의 北洋出漁는 完全斷行할터로 이에對하야 蘇聯極東官憲이 阻止的工作을 行함은 條約上 權利로 容認할수업다하야 交涉에 對하야 大田駐蘇大使에게 訓令하야 에交涉再開를 要求케하는 一方 交涉不調에對한 最惡의 事態도 考慮하고 內外에 對한 第二段의工作을 急히하고잇다

스運河封鎖勸告
倫敦國際聯盟協會支部決定

【倫敦二十四日發同盟】倫敦國際聯盟協會는 二十四日支部會에서 對伊制裁强行을 決議하고 스에즈運河封鎖를 政府에勸告키로 決定하엿다

人事·集會

▲今井田政務總監 二十五日午後十時 京城驛發列車로 渡東하기로 되엿는데 途中에 南朝鮮地方을 視察하고 卄六日東京을 出發하는 宇垣總督과 海雲臺에서 맛나 政務에 對하야 重要協議를 遂하고 渡東하야 臨時議會에 出席할 豫定이다

▲齋藤利三郎氏(大阪 [illegible]) 本社來訪

八面鋒

◇『라인란드』에 要塞를쌋켓다、싸허서는 안된다하야 英國과 獨逸이 주고밧는다。

◇ 입심만부리는것은 舊世紀의外交、無言實行이 効力第一인판에는 念佛은 無用。

◇ 外陸海三相會議를 閣內에 常置키로 決定햇다고。

◇ 齋藤內閣의 五相會議以來 例奏의 會合이라면 모르되、다른 大臣은 伴食大臣으로 滿足할수잇슬가。

◇ 淸津과 雄基의 兩港設備를 無償으로 滿鐵에 貸付키로 決定。

◇ 羅津과 아울러 北朝鮮三港의 新建設이 떠드는바와가티 實益을 줄것인가。

포토리코獨立案 米上院에提出
比島獨立法案提案者타氏가

【華盛頓二十四日發電通】米國上院의 島嶼關係委員會委員이오 比島獨立法으로알려잇는 타이딩氏는 二十四日 포토리코獨立法案을 上院에提出하엿다 그要旨는 左와如하다

一、人民投票에依하야 獨立이承認되고 憲法이 採擇되면 一九三七年七月四日까지에 自治를 許함

二、其後 四個年後 本案의規定에依하야 完全한獨立을承認함

그리고 타이딩氏는 法案提出에當하야 右는 政府의政策에準據하는것이라고述하엿다 그리고볼토리코는 一四九三年 콜롬보스가 發見命名한 안틸레스第四位의 大島로 其後西班牙領이되여잇섯스나米西戰爭으로 米國에歸하야 今日에至한것인데 人口約百六十萬砂糖、烟草、珈琲等의 農産物을 産出하고 土地가極히 豊饒하다

川越天津總領事 五月二日發歸國

【天津廿四日發電通】歸國命令을接한川越天津總領事는 五月二日 天津發歸國하기로決定하엿다

아라비아人 對猶太人間衝突
各自主張聲明
回敎徒—끗까지猶太人과對抗
猶太人—今回迫害는理解不能
팔레스타인의民族鬪爭

【예루살렘二十四日發同盟】팔레스타인에잇서 아라비아人의反猶太人熱은 益益 熾烈하야 形勢는 極히 不穩한 現狀이나 回敎委員長으로 重要指導者인 에이氏는 어데까지 猶太人移民에 對抗하야 아라비아人國民의 獨立을 擁護하는 決意를 披瀝하야 二十四日 에루살렘에서 左와如히 말하엿다

現今猶太人과의 間에 惹起된 衝突은 決코 偶然한일이 안이다 猶太人에 對한 憎惡는 大戰中 英國當局의 밸프어宣言이 아라비아人을 無視하고 猶太民族의 居住地를 建設한데서 由來하얏다 一九一九年 아라비아大會는 右建設에 反對하고 一九三〇年 英國政府는 回敎徒의 所有土地面積增加를 約束하엿스나 맥도날드首相은 有力한 猶太人의 壓迫으로 約束을 取消하여버렷다 猶太人은 元來 英國에 忠誠을 表하여왓스나 萬若 英國이 猶太人을 支持하고 아라비아人의 權利를 無視하면 我等은 英國에對하여도 反抗하지안흘수업슬것이다

一方猶太人의 指導者인 데라비브市長 로카氏는 猶太人의主張을代表하야 二十四日 左와如한 聲明을 發表하엿다

猶太人의 居住地인 데라비브市는 世界大戰의 뒤를 바타 建設되엿슴에도 不拘하고 我等 猶太人의 努力으로 現今人口十五萬을 擁하는大都市로 發展되엿다 이것은 猶太人뿐만아니라 回敎徒에 對하여도 利益을 가져온것이다 猶太人은 實로데라비브市建設로 安寧한 文化的使命을 다하엿다 할것이다 그리고 英國政府는 이미 예루살렘에잇서 猶太人의 安全保障을 確約하엿다 그런데 아라비아人으로부터 今回와如한 迫害를 受한것은 實로 諒解하기 困難하다 迫害事件은 아라비아人이 正當한理由가업시 平和를 公約바든 猶太人을 殺傷까지 敢行한데서 發端된것으로 我等은 迫害하려한 無謀한 主義者가 아직 嚴罰되지안흔것을 甚히 遺憾으로 녀이는바이다

いつも正しいセイコーシャの時計 セイコーシャの此仕事は正に世界一

市價三分の一投賣 (業外國商館販賣處分品引受整理)
景品付一掃大賣出し
正十八金側懷中時計(瑞西製)
クローム側懷中(瑞西製品)
クローム側腕卷
セイコーシャ地方時計部
東京市淀橋區上落合二ノ六一七 振替東京八二四五四番

朝鮮總督認可
京城自動車學校生徒募集 學則要二錢切手
募集人員 普通科、速成科 各四十名
入學期日 補缺生으로써隨時入學을許함
特典 一、普通學校卒業程度의者와無試驗入學을許함
一、本校入學生에限하야英語及漢文無料敎授함
本校在學生은他의公立學校와同樣汽車、汽船의割引잇슴
京城府太平通(電話本局(2)〇四九一番)(振替京城一三三七番)

創立三週年特典生募集
朝鮮唯一 認可電醫
物理醫療士責任敎授
最新物療全科敎授 院長 東京電醫學校創始學長
認可 朝鮮高等電醫講習院
京城府黃金町三丁目三四四番地

新時代에適合한新製品을使用하시오
敬良三成金비녀
復式크롬비녀
銀張三成銀비녀
型錄進呈特約店募集
京城府瑞麟町四十三番地
三成堂製作部
振京五八四四·私函光化門三三

부인약 益母草엑기스錠
前醫學專門學校敎授 京城帝大醫學部囑託 醫學博士 朴昌薰先生監製
婦人의厥冷性은모든婦人病의根本
益母草엑기스錠은 月經不順 帶下症、諸子宮病의 徹底的治療와 産前産後의養生에國際的藥으로確認된 古今唯一의婦人聖藥입니다 또男女를不拘하고 神經衰弱諸冷病消化不良에 特效가잇습니다
月經不順 産前産後姙娠中
帶下症과子宮病에
本舖 京城府公平町八八 大盛堂藥房 振替京城七八九三·電光一三五六
特約店募集
代理店 京城南大門通 株式會社 新井藥房

蔚山近海에 大暴風 漁夫廿四名失踪

一名은 溺死 十四名은 救助

漁船五隻이 出漁中

【蔚山支局電話】어제이십사일오후네시 경남울산군동면(蔚山郡東面)압바다로 고기잡이나갓든그면 방어진(方魚津)사는 어부삼십오명은 때마츰 맹렬히부는폭풍과 비를만나 어선다섯척과 어부이십사명은 행방불명이되고 한명은죽엇스며 열네명은 겨우구조되엿는데 급보를받은 울산경찰서와 경남 수산과(水産課)에서는 경비선을 현장에출동식혀 행방불명된 조난자를 수사중이다 조난된어부는 다음과갓다

▲蔚山郡溫山面方魚里 金小道外六名 배와함께行方不明▲金泰守外六名同上▲鄭守富外六名同上▲金敬三外六名中 一名死亡·六名生存▲崔英述外六名中三名行方不明四名生存

家具商組合에서 賃金減下運動

【平壤】평양가구상 조합에서는 가구제작임금와 가구운송을 얼우키고 상대가되는 목공조합(木工組合)에교섭을 개시햇다 종전까지에는 평양에서 제작되는가구가 멀리경성 이남에까지 다량으로 판매되어 경기가조왓스나 최근에는 경성시내에도 평양을 모방하는 가구상이 만히 생기어 평양산 가구의 판로가 막히게되엿다 이때문에 부득이 가구공급도 떠러지게 되야 판매량도 저하되엿스므로 자연히임금을 감하해야겟다는것이다 자조 임금문제를가지고 쟁방조합사이에서는 충돌이 잇섯스나 이번만은 목공조합에서 양보할것으로보인다

地金買上價를引上 密輸를根本防遏

警察에걸린密輸額은年六百萬圓이나 其實은三千萬圓?

金 禁足苦悶

총독부에서는 조선산금매상가격의인상에대하야 대장성에구체적으로 의견을제출하고저 방금대책을강구중이라한다 그런데 조선내에서 산출하는지금으로 외국에밀수출되는것은 최근일년에 이천오백만원내지 삼천만원의거액으로추정(推定)되는데 경찰에서검거한사건관계로본금액은 불과이백만원내지 육백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실에잇서서는 전과와가티 조선산금액의삼분지일내지 절반이 외국에밀수출되는 현상으로 이것은 금수출금지의목적과 조선산금장려정책에 어그러짐이 크다한다 밀수출이 성행되는것은 조선은행의 매상가격이 『론돈』금괴의가격보다 매우싸기때문인데 총독부의의견은 정부의금매상가격을 론돈금괴의시가(時價)와 비슷한수준으로 인상하야 밀수출의방지를하야 정부의금보유량(保有量)을 증대식히는것으로 불원 정식으로 대장성과교섭을 할터이라한다

戶別稅等級査定 問題로不平이爆發

【平壤】소화십일년도 도세호별세의 부과등급과 납세의무자의 인별부과액을 토의할 제사십사회 부회는 이십사일오후두시부터 부회의실에서 개회되여 납세 의무자의 자력사정(資力査定)에 대하여 어대에근거를둔 자력사정이냐?는 질문이 백출하여고 부리사자는 단변에 몹시몹을흘하엿는데 이번의 세제개정의 더래으로 재래에는 천원을 납세하든사람이 일약오천원으로 뛰여올나간례가 비일비재하다 더욱 구시가조선인측의 납세액(納稅額)과 등급납세인원은 무섭게 거어올나가게되여 금후 완전한 결정을 보기까지에는한의가 백출하여적지안흔말성이생길것으로추측되며 길촌(吉村)의원은이번의 부과등급과자력사정은도모지씨가 먹지를 안헛다 할부로세납을 놉히어 잘바다드리며웰테이나 올나가는줄아는 세무관계자들의 행동이애처롭다고까지 충론한바잇섯다

昏倒한遭難者로부터 無燈證明을强要

自過의後患을防備手段으로 鳳成丸船長의怪處事發露

【仁川】지난부어선과 충돌하야 조난자십오명중 구명의히생자를 내인 봉성환(鳳成丸)의횡포에대하야 제주도인회(濟州島人會)에서 궐기하고잇다함은 기보도한바와갓거니와 전기봉성환의횡포는 갈수록심한것이발로되고잇다 이에피해선장문창욱(文昌郁)(三三)의말에의하면 조난당시구사일생격으로구조되야 괴로와창고에누인제 인천으로오는도중 선장이문씨를불러 선등(船燈)은 살피면에 끼여잇엇다는 증명서를쓰라함으로 문씨는혼도중에 아모것도몰으고 써주어서 정신을차리고보매 흥행에 무슨증거가 될우려가잇슴으로 다시선장을 보고 나는증명서를써주엇스나 당신도 하여간충돌한에는 둥이잇섯다고 증명서를써달라 하얏스나 아모것도 써주지안코 그러면 선등(船燈)만은 업섯스나 보통등을켯다고쓰라함으로 또다시써주고 먼저써준증명서를 도루달라하엿스나 소실(燒失)을빙자하고 주지안헛다한다 이에해상위험방지법(海上危險防止法)을 참작하야보건대 이십톤미만의선박이 간향해를할시에는 미튼퍼럿코 우는붉근선등을 달아 항해방향을 표시하라는 조문에해당함으로 이는선장이 자기과실을 감추랴고 계획적으로 혼수된 선주들의 로에 억지로 써달라는것이라 일반은 이에분개하야 구조된자중 롱명은 봉성환소속회사에서 주는려비도 맛지안코 최후까지 싸우라는데 그들은 최후도업시 상방집에서 병으로 신음하고잇다

北朝鮮國內移民

千百名二十九日向發

【陜川支局特電】 만주철령(鐵嶺)으로 이민가는 합천군하 오십칠명은 이십오일오후 렬시발정 을 등지고 정든고향을 등지고 전별나온 친척들에게 섭별의 눈물을흘리며 만주로향하야 떠낫다

도이민!——경상를 일로 일자리조차 못엇는 남조선 방면의 로동자 일천백여명은 총독부알선아래 오는이십구일 호남선(湖南線)경부선(京釜線)츠로부터 림시렬차로 북조선방면인회녕(會寧)라진(羅津)등지로 이주하기로 되엿는데 이들은 대개 전라남도(全南) 전라북도(全北) 경상남북도(慶南北)각지의 리재농민들이라한다。

古蹟과風致地帶 今後론鑛區絶對不許

國有林貸付와拂下까지도 三當局이合議決定

총독부학무국에서는 식산국과의한결과 고적(古蹟)과 풍치지대(風致地帶)에는 광산채굴의허가를 하지안키로되엇다한다 또 이와동시에 국유림의대부와 불하(拂下)에도 역시고적과 풍치지대에는 허가하지안키로 농림국과 협의결정하엿다한다 종래에는 고적지대와 풍치지대의 광구출원과 또국유림의대부와 불하원에대하야는 일일히 사회과고적계에 서류를 회부하야 동의를구하엿스나 이번에식산、농림량당국과 전기와가티협의결정한결과 고적지대와 풍치지대에는 단연허가치안흘 방침으로 결정된것이다 따라서 금후이러한 지대의 광구출원과국유림의 대부 또는불하에 대하여는 출원을 하여도 허가안될것이라한다

꼿피는月尾島에 青年屍體漂着

【仁川】조선의명승인월미도에 봄소식이전하야지자 『진달내』와벗꼿과 개나리가 피기시작하매각지의 상춘객과 수학려행단으로 인산인해를 일우고잇는 월미도에 지난 이십사일 오후네시경 이십사오세가량의 청년시체가표

水原에傷人强盜

對抗하는家人을短刀로刺傷 雨傘쓰고泰然侵入

이십오일 오전령시반쯤에 경기도수원군수원읍매산리(水原邑梅山里)자원상강만수(姜晩秀)(三三)의 집에『쓰메에리』양복을입고 나려수건을 두른 강도한명이 드러가서 안방마루에서 주인을 깨웟다 그소리를듯고 강만수의안해는 놀래여 이러나면서 『도적이야』고 소리를 질럿든바 그의 둘재아들 룡채(龍采)(二六)가 이러나서 마루로 나갓더니 강도는별안간에 가젓든 기리여덜치가량되는 칼을 들고 덤벼드럿다 그래서 룡채는 이불을 가지고 대항하야 한바탕 격투를 하게되엿는데 강도는 그 신변이위급하게됨을 따라 그칼로써 강룡채에게 함부루 휘둘러서 좌우손에 중상을 입히고 아모물건도 빼앗지못하고 어데로인지도주해버렷다 그강도는 격투끗헤 중절모자한개와 우산한개를 흘려두고 가버렷다 이급보를 밧고 수원경찰서에서는 비상소집하야 범인을 수사하는중인데 범인은 삼십여세가량되여보이며그남겨두고간물건을보아서목수(木手)인듯하다한다

襤褸破石을包裝

運送先代金巨額詐欺 一次二次로六百餘圓詐欺코 第三次에야遂綻露

일원가치도 업는 쓸데업는물건을 꾸려서 운송점에 부탁하여 철도로 운송시키고 운송점을속여 돈을 후려먹은 맹랑한사기군―시내아현정(阿峴町)사백구십이번지사는헌가마니장사 최수남(崔壽男)(二七)과 시내봉래정(蓬萊町)사정목 이백팔번지 마차쟁이 리완성(李完成)(三二)두명은 지난이월일일에 서로·공모하고 『콩크리트』조각을짐작가리 꾸려매가지고 시내봉래정 조선운송회사지점(朝運支店)에가서 양말과비누가 드러잇다하고 발송인은 시내황금정삼정목 조일상점(朝日商店)수취인은원산(元山)박동호(朴東浩)라고거즛서명을써서 대금인환(代金引換)으로 운송을부탁하고 그운송점으로부터 돈 사백이십삼원을 선대(先代)해달라하야 속여먹고서 또 그달 이십사일에는 그와동일한수단으로 동일배오십원을 속여먹엇다 두번이나 감쪽가티 속여먹어에 자미를 부처서 이달십일에는 헌양산 열여덜개를 궤짝에 너허가지고 천안(天安)김성백화점(金成百貨店)이라는 거즛수취인을 지정하야 역시 그운송점에 부탁하고 이십일에그 운송점에 차저가서 일백구십원을 선대해달라고 교섭하다가그만 발각되여 주범 최수남은 서대문경찰서에 붓잡히고 공범리완성은 어데론지 도주해 버렷다한다

出漁中帆船顚覆 船員二名이死亡

【仁川】어선이폭풍에좌초——부천군북도면신도리(富川郡北島面信島里)팔백구십삼번지 조송일(趙松一)의소유선이 근해출어중 지난십구일오후세시경에 폭풍을맛나 여지업시전복되야 전기주소에사는 선원인천길(印天吉)(三三) 김창선(金昌善)(三二)두명이 풍랑에 표류다가 전기리영남(李永甫)(三三)은 파편(破片)에매달리여 표류다가 부근어선에구조되얏스나 그외두명은 종신기 사망되엿스나 그시체는 아즉 판명되엿다하야 부근어민간의 물의가 분분하다 하야 당국에대한 시설불충분에비란이적지안타한다

可恐할"少女"네로

火災場面이興겨워못견듸여 前後五回放火巡禮

전차(前借)에 시달린 나어린 여자가 대담스러케 여섯차례나 남의집에 방화한 사건이 잇다 시내 본정서(本町署)관내 초음정(初音町)에 근일 계속적으로 적은 화재가 잇서 그서에서는 그 어떤자의 방화가 아닌가하야 그간 엄탐중이든바 이십사일 저녁 다전(多田)、김(金)량형사는 초음정(初音町)이십이번지 식당(雙葉食堂)녀급 상구보(上久保)녹오도에(一七)를 인치하야 취조한결과 무서운 방화를 자백하엿다한다 그는 식당에 삼백오십원의 전차금을 쓰고 고용되여잇섯스나 이에 자미가업서 지나며 자기의전도를비관하든차 사월십일 발생한큰방 초음정 화재를보고 뒤숭숭한속을 위안(?)밧고 여기망을부치 지난 십팔일부터 전기식당부근 집에 다섯번이나 방화하엿스나 모다 즉시로 발견되고 큰일에는 이르지안흔것이라고한다

핸드빽强盜

목을눌르고强奪逃走

이십사일 오후열한시쯤 길야정(吉野町)일정목 삼십칠번지 길야천천대자(吉野川千代子)(二二)가 활동사진구경갓다 집으로도라가는길에 길야정일정목 삼십삼번지앞길에서 돌연히 엇떤소년한명이나타나 심천천대자의 목을눌르고 일원오십전드른핸드빽을 강탈하고 도주하여버렷다한다 이급보를바든 소관본정서(本町署)에서는 즉시 시내각서에 수배하야 범인을 탐사중이라한다

第四回全朝鮮籠球마라손 新進選手總動員

明廿六日正午·京城運動場서

朝鮮體育會主催의 第四回 全朝鮮마라손大會는 明二十六日 正午부터 京城運動場에서 열릴터인데 이번에 募集한 十五名選手의 競爭戰으로 는 新界뿐勝을 爭하야 老將들의 面影은 볼수업는 反面에 將來有望한 新進選手들이 多部分出戰한바 이날 이新選手들로 말미아마 어떠한 記錄이 作成될지가 큰興味를 이끌고잇다

蹴球戰遂開幕 十都市對抗

劈頭戰에群山先勝

同衆朝鮮中央日報社主催의 第一回全朝鮮都市對抗蹴球戰第一日은 二十五日正午부터 京城運動場에서 十都市代表팀選手의 入場式에뒤니여 大會長呂運亨氏의 意味深長한 開會辭가잇슨後 援側을代表하야 朝鮮體育會副會長 兪億兼氏의 祝辭가 잇슨다음參加選手一同을 代表하야서는 嶺南浦팀主將 朴基漢君의「굿풀레이」를約束하는 宣誓文朗讀이 끗나자同午後一時부터 이大會의 劈頭戰인群山對 順天戰으로 大會의첫幕은열리엇다 이날

劈頭戰의 群山對順天 蹴球戰은 二十五日 午後零時五十五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金命德(球)金洪烈、劉約翰(線)三氏 審判아래 群山先蹴으로 開始한 바前半戰에는 兩軍激戰五레 一對一同點으로 마치고 後半戰에 드러가 群山側·風勢를利하야三點을先取하엿슴에 反하야 順天軍은 數次好機를失한後 겨우一點을回復한채로 물어서니 結局 四對二로 群山蹴球團先勝하엿다

夕刊에을 까지의 結果는 다음과갓다

群山4 順天2

(게임時間七十分)

群山4 (3-1 / 1-1) 2順天

【群山】		【順天】
任昌準	GK	徐廷宜
永燦 順奎 金贊	FB	永得 日乙 吳金
得秀 奉根 鄭李 得秀	HB	洙來律 昌甲勝 金鄭吳
錫鎬秀順成 金允 奕守 蔡乗山 李金	FW	石米全奕福 東命南 徐吳金朴韓南

(寫眞은…都市對抗蹴球大會 入場式光景)

中央基青의兩大會

任員會開催 今夜同館社交室서

中央基青主催와 本社後援의 第九回力技大會及 第六回器械體操大會는 來廿七、八兩日間午後八時부터 中央青年會館에서開催될터인데 이兩大會를 앞두고 今廿五日午後八時부터 大會任員會를 同會館社交室에서 열고諸般事項을 討議決定할터인바 任員諸氏는 無漏參席하야주기를 바란다고한다

中央基靑主催의全朝鮮 力技及器械體操大會 申請期日―今廿五日限

昨年은 遞信軍優勝 京水驛傳競走 明廿六日水原出發

朝鮮學生陸上競技聯盟主催의 第二回京水間對抗驛傳競走大會는 明二十六日午後一時水原北門前을出發하야 一路京城南大門압 決勝點으로 突進할터인데 參加校는 昨年度優勝校遞信軍(二時間三十三分五秒)을비롯하야 城大、法專、醫專、高商、高工、法科、同農科、水原高農、齒科醫專、藥專等의 十個校가 參戰하엿는데 遞信軍의 再次制覇氣는 滿滿한中에잇다한다

朝鐵對門鐵의리비戰

朝鮮鐵道對門司鐵道의 第三回定期리비戰은 來廿九日午後三時부터 門司小倉運動場에서 擧行하기로되엿다

運動界人事

▲馬山蹴球團一行十四名은 第一回全朝鮮都市對抗蹴球大會에出戰코저 監督李元世氏 引率下에 二十四日朝入京 仁寺洞開城旅館에 投宿
▲元山蹴球團一行十七名은 同大會出戰次 監督中泰今氏引率下에 二十四日朝入京 貫鐵洞槿花旅館에 投宿
▲鎭南浦蹴球團一行十七名은 同上大會出戰次 監督朴龍得氏引率下에 二十四日夕入京 貫鐵洞東亞旅館에 投宿
▲平壤蹴球團一行十九名은 同大會出戰次 監督崔允鉦氏 引率下에 二十四日夜入京 太平通泰三旅館에 投宿

天氣予報

概況 어제아츰上海附近에잇던 低氣壓은 漸次빼처서 어제밤 朝鮮海峽을橫斷하고 오늘아츰은 日本海南部에잇서東進하고잇다 高氣壓은 揚子江流域과 日本本土의 東海上에 퍼지고잇다 滿洲로부터 朝鮮中部까지는 날씨가恢復하엿스나 南朝鮮은흐리고 朝鮮海峽及日本內地는 風雨가 余름하고 北海道 樺太는흐리다

豫報 오늘밤 京城地方은晴來日은 西風이불고 晴、京畿道全區도까다

昨日最高 一八度
同 最低 七度二
今朝最低 七度五
今廿正午 一三度八

不老長壽 強精補血 更少辛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劑十円

內地蔡參、白參、精白米、赤胡豆、粟、高麗糯米
產地直輸入商
釜山大倉町四丁目廿五番地
合資會社 東一精米所
代表社員 尹貞浩
電話一九九〇番

斯界評定公認서울아―式
軟球靴 五圓五拾錢 白黑茶色
カタログ進呈
運動具大注文歡迎
ラケット
ベニス(?)...2.50
...3.50
...4.80
フットボール 中等用
五號 A-5.50 B-5.00 C-4.50
四號 A-4.50 B-4.00 C-3.50
京城公平洞……서울運動具製造所

專賣特許
疲勞를恢復하며元氣를도와
漸漸健康을增進식히는
참으로맛난高速度滋養料?
どりこの 도리코노

림질 ネオチリン 리오지린
可恐할寄生蟲病의驅除는 ... 로서 武藤、守住氏 等의 醫學博士推奬의 最新藥ネオチリン을 服用할것을 推奬함 本劑는 ... 研究部가 加藤藥學博士와 共히 幾多의 實驗을거듭한 苦心研究의 結果完成된것으로 殺蟲力이 强하고 急性慢性을 勿論하고 ...
價 (?)二圓、三圓、五圓、十圓
京城本町四ノ一二六 株式會社 木村藥房
兵庫縣細川、電送阿(?)番 株式會社 山本製藥所
全國藥店百貨店에잇슴

가、止、拔毛止 毛生、若禿에 新養毛料(?)
ワカミツ

優等生이될려면 讀方의工夫가第一必要
朝鮮敎育會認定 普通學校國語讀本
模範朗讀레코ー드
前期用第一輯 六枚發賣 一·三·五·七·九·十一
今月二十日부터 發賣
近處의 蓄音機商이나 特約店에 速히 用命하야주십시요
京城府黃金町二丁目·電話本九九六
레코ー드 코ー드 ... 도ー드

校舍大擴張
◇新學期開始五月十一日(前期)
第二部第三部(中等學校入學又는內地上級入學準備)
◇中等科第一部
◇中學校高等普通學校商業學校實力養成科(三個年卒業)
生徒募集 京城黃金町六丁目廿二番地
京城中等豫備專修學院
(電本五三六〇)

官廳、銀行、會社商店就職紹介◇晝夜新學期開始五月十二日第一部
◇學則至急(?)校舍大擴張敷地六百餘坪及運動場千五百有餘坪
晝夜生募集
實踐範記專修學院
(第四十七回)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電本五三六〇番)

電醫師養成 學則進呈
責任 平壤府西九里七四
認可 平壤高等電醫學院

當る廿三日大公開
春!花!映畫觀賞シーズンに放つ中央の爆彈的東西二大名畫週間途に來る!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大陸非常線 一二·〇〇 三·三〇 六·二〇
ふるさとの歌 一二·三〇 五·三〇 八·三〇
新興キネマ本年度提供音樂映畫
高田プロ·新興大合同製作
原作 村上德三郎 監督 牛原虛彥
コロムビア管絃樂伴奏
音樂監督 江口夜詩
オール·トーキー
ふるさとの歌 全十五卷
高田稔·伏見信子·主演
橫尾泥海男·江口夜詩·霧立のぼる
近藤伊與吉·淸水將夫·高倉惠美子
·松平龍子·助演特別出演
ムウラン·ルウジュ 北川美枝子
レコード界の麒兒!天才發樂家!現代劇俳優の第一人者高田稔が初めての音樂映畫!稔の天才的美聲を聞かれよ!
メトロゴールド超特作日本版 監督 リチャード·ボレスラヴスキイ
大陸非常線
ロバート·モンゴメリイ マッヂ·エヴアンス 主演
永樂町 中央館 番電(?)三三

四月二十四日부터(晝夜二回)
午後一時半 七時半
東劇座公演(第二週)
悲劇 人情 아들의죽엄 二幕
李雲芳作
主演 崔仙、金陽春、朴昌煥
宋海天 다시東劇舞臺를빗나게할것이다
『어머니』로서의演技를期待하시라
金振門作 女給 哀話 紙幣를찟는女子 一幕
主演 金陽春、朴昌煥
돈!돈!!얼마나그립든돈이냐그女子를들고나그러나그女人은紙幣를찟지다그女人은왜紙幣를찌젓슬까가?
金健作
時代 劇 復讐三尺劍 一幕
主演 崔仙、韓一松、金陽春
朴昌煥
忠魂은丈夫의뼈이요사랑靑春의彈寨이니꼿아래맷는佳約三尺劍에아롱진다
花山學人作
喜劇 天國이냐地獄이냐 一幕
腰折、抱腹、안이웃고는못견
西大門町 電光3二三番
東洋劇場

奇人奇聞의片信
동양 唯一 觀相師
新運命의開拓은姜南月先生에
美南月先生은 果然엇더한才士인가 그는그의빗나는手腕으로 過去現在未來를 섯듯판단하는 朝鮮의 天才觀相家이다 하로밧비 先生의指導와 觀察을 바드고 開運成功하라 ...

姜南月先生
但、相談은會面에 男子는 自筆 女子는 ...
京城府 ... 町六百八十七番地
姜南月觀相所

醫師試驗準備書
漢醫試驗 講義自宅 通信 ...
京城府 ... 春明醫院醫學通信學校

店員三四名募集
雜貨商界에經驗이有한者 二十五歲以內男子로 日本語能通한人 三四名(要保證人)
履歷書持參來談于府內 通義町四九 安明圭商店
大阪市東成區 京屋雜貨商店

百補丸一萬人限一劑式

代金全額後拂

僞造百補丸을注意하시요
百補丸은平和堂外에絕對無함

藥効가 廣告와 달르면 代金을 送金치 마시요

藥先送 服藥後 代金支拂

不老長壽·強精回春·更少年補藥

●百補丸은東西洋補藥中 最極上 第一完全 絕對特上 効力신기합니다

氣力이 活潑하여지고 무○가 完全히낫고 筋骨이 튼튼하여지고 체증이 업서지고 精氣不足이니 腎水不足이니 하는생각은 夢中에도 하지아니 하게되며 補全身·百補하야 生理的으로 精神的으로 完全히 更少年이 되고 不老長壽케되니 이에서 더조흔補藥이 어데잇습니까 더욱이 嘗分間 藥先送하고 代金全額後拂條件으로 販賣하오니 이藥効를 疑心할餘地가 秋毫만치도 업슬것입니다 只今곳注文하시요

人生에急大問題

草木은 肥料를 주어야 茂盛하고
사람은 補藥을 먹어야 健康長壽

●나무가 마르려고할때에 肥料와 물을 주지아니하면그나무가 엇더케됩니까
●사람이性慾이숩고 氣力이업고 勇氣가 나지아니하는때에 조흔補藥을 아니쓰면 마르려는 나무에 물아니준것가치 悲慘하게됩니다
이런때 藥을아니쓰면 닭잡아겨굴것을 소잡아겨게되며당신의몸에큰일이 나게됩니다 이런때에 百補丸을使用하시면 모든虛弱症이 根本的으로回復되고 前以上健康하고 普通健康人보다 特別히 越等한 精力조흔사람이 됩니다 實로更少年百補하야 人體改造할수잇습니다
●性慾이 減退한사람 ●手足과下焦가 恒常濕冷한사람
●消化不良한사람 ●恒常氣力이업고
●活氣가적은사람은
早老할症狀이요長壽못할症狀이오니 一日速히第一完全하고第一조흔補藥百補丸을服用하시와更少年이되시요

事實이第一

廣告면 다 藥이면 다 廣告가아니고 藥이아닙니다
廣告는 事實을 記載하여야 참된 廣告이오 藥은効力이充分하여야可謂藥이라할것입니다

代金後拂 規定及趣志

百補丸의大特効를 天下사람에게 急速히알게하기爲하야 代金全額後拂條件으로 販賣합니다만은 試服後代金을 곳送金하여주실人士는 官吏이지 私民이지 富者이지 紳士이지 無産者이지 農民이지 商工人이지 알지못하겟습니다 그러타고 누구에게던지 다後拂條件으로 送藥할수는업는 故로全朝鮮道知事 全朝鮮郡守 全朝鮮面長·全朝鮮官公立學校長 全朝鮮金融組合理事 京城市內町總代 全朝鮮百石以上秋收하는 地主에게만 限하야 後拂注文에應하고 그他諸賢諸氏에게는 罪悚하고 未安하오나 商業上不得已한 事情이오니 失禮이오나 普通注文으로 해주시기를 伏望하옵나이다 後拂注文도 試服後代金을支拂하거나 藥이不合意하면 返藥하거나 할것이고 普通注文도代金을 先金으로 送하엿으나 萬一이라도 或藥이 貴意에不合하시면 返藥하시고全額返金請求하시게 規定이되여잇사오니 後拂이나 先金이나 代金引換이나 服藥家의利害得失은 꼭갓습니다

後拂注文法

注文時에 먼저 後拂注文이라쓰고 藥代金十圓은 試服後 支拂할터이니 百補丸特製一劑보내시요 送費七十錢은郵票同送합니다 送費七十錢은 先金을受하오니 郵票로나振替나 爲替로 先送하여주시요 注文法은 貴氏名엽에官吏면 官名을 富者면 富者 地主라고 百石以上秋收하는地主면 地稅證明書를同封하여주시요 注文書에는必히捺印하여주시요

普通注文法

平和堂振替五番에送金하시거나 爲替로나先金十圓을보내주시던지 藥書로百補丸特製一劑代金引換付送하라하시오

普通注文人에게特典

普通注文人에게는 送料도本社負擔하고 또本社苦心發見한 專賣權手續中인 秘中秘로秘用한 九重宮闕에秘方藥超特强精補藥試用小一箱을 無料로添呈합니다 (期限當分間)

朝鮮總督府 警察部檢查 販賣許可劑

神人道師 葛玄眞人 의秘方藥

補陰·補陽·補腎·補血·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不老更少年仙藥

根本的回春壯陽強精強筋強骨借力·平生無病健康長壽劑

百補丸

●代金全額後拂販賣를하니 藥効의 偉大確實最極上은不問可知●

第一、第一、참第一、정말第一조흔 補藥인故로 藥先送하고 代金後拂約束으로 販賣하고 잇습니다
그런즉이藥의効力이 얼마나 確實한지는 諸氏도 不問可知일것이옵시다
●이仙藥을 販賣開始한지 五個年以來벌서 先服者不知其數인대 百人이면百人 千人이면千人이다特効하다 神効하다 更生하엿다等稱讚아니하는 사람이업는故로 本社는 絕對自信을가지고, 이仙藥이 天下에第一가는 補藥으로 確信하고잇습니다
●實로累試累驗한藥인故로 이러케自信을가지고 代金後拂効力保證케야까지합니다

百補丸의藥効는左와如히 참 굉장합니다

一、百補丸을 服用하면 爲先 手足과 下焦가 불가티 더워집니다
二、精力이 潮水가티 每日每日느러서 事務를 自然不知中 만히보게되며 深夜것도 徹夜하야 不眠努力하여도 翌朝에 無難히 早起하게됩니다
三、飮食을 自然히 만히 잡수시게되며 체증가튼것은 어느때 업서젓는지 알지도 못하게 업서집니다
四、一週日마다運服하면 ○가튼 性○이 不知中○變되며 運服하면 用之不渴 精源이 如泉하며 玉骨仙風 皮膚에 주름살이퍼지며 不老更少年이되며 ○○과○○두가지 人生最大의 歡樂을妥히 滿足하게되며 永久히 幸福한 身體의 所有者가 될것이옵시다
五、過山松葉龜을能히세일듯 百補丸을 服用하기始作한지 五日間만지나도 몸이漸次爽快하여지며 過山의松葉龜을能히 세일듯한 氣分이生합니다 이것은 特히 精氣盛氣가 청신活氣되는까닭이며 몸이輕하야지는것은 贅肉이減하여지는것이아니요 筋骨이 튼튼하여지는까닭입니다
六、體重이增加됨 服藥前과 服藥後 體重을 다라보시요
七、몸의健康은家庭의 圓滿을回復하고○○의健康은 不和한家庭을和睦케함 몸의 健康 精神의健康 ○○의健康은 不和한家庭을 和睦케하며 衰退하여가는 家運도 必히挽回할수가 有합니다

身體가 虛弱하면 興旺한家運도 多頃한家勢에못이기여 敗家케됩니다 可實히必要한것은 健康二字뿐입니다

八、連日深夜 讀書視務하여도 翌朝에 無難早起케됨 連日하야 每夜子正後一時 二時까지 研究視務 讀書하여도 조금도 疲勞치안코 翌朝에 何等疲勞가 無히 早起케됨 是果然百補之緣由 藥効偉大之證
九、百補丸은 完全無缺한補藥이됨 補藥中에는 或一部機關만 補하는藥도 或人無効하지만은 百補丸은 人體百部를 全部理想的으로 補身하는 靈藥이요 二十餘種 珍貴한原料가 配合하야잇는 神人道師葛玄眞人의 救世的秘方藥입니다
十、腎氣가 大增進되야 ○○의回數가 不可量之數로 增加됨
十一、每日 公事 私事間 處理件數와 執務時間이 不識中自然延長됨 身體와 精神이 疲困하지아니하니가 自然히 研究와事務處理를 만히하게됩니다
十二、世上을 樂觀하며 難關가튼 事件도 能히容易하게 處理하게됩니다 大膽히 不平한일과 성가신일을 當하여도 마음과 머리에조금도가나지아니하고 참으로침착히 完全히무슨일이든지 判斷됨으로 世上에恐懼할바업고 무슨일이던지 樂觀됩니다
十三、血色이 조와지며 얼굴에주름살이 퍼지며 젊어지며 玉骨仙風이됩니다
十四、힘이생깁니다
十五、사람이침착하고정지안어집니다 ●神經衰弱가튼것은멀리멀어갑니다
十六、長久連服하면 久難도消滅됨○○後疲勞不暴은 참신기기묘可驚其効
十七、淋疾根治後는 回陽키爲하야 必히 百補丸을 服用하여야합니다
●健康한身體라야 世上에서 살滋味도잇고 健康한子孫을 牂합니다
●百補丸은 絕對的 一時的 効果를 내는藥이아니고 道師神人 葛玄眞人의 秘方藥입니다
葛玄眞人은 漢醫書등은 다잘아사는 道師입니다 代金特價一劑拾圓·重用二十圓

無料進呈 三劑以上共同注文하시면 周旋人게一劑無料進呈

●修身齊家治國平天下도爲始健康 効力絕大한…補藥을長服하면 不老는勿論…事業成功도百倍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京城府堅志町(五·六)(前中央日報社跡)振替京城五番·電話光化門六三二一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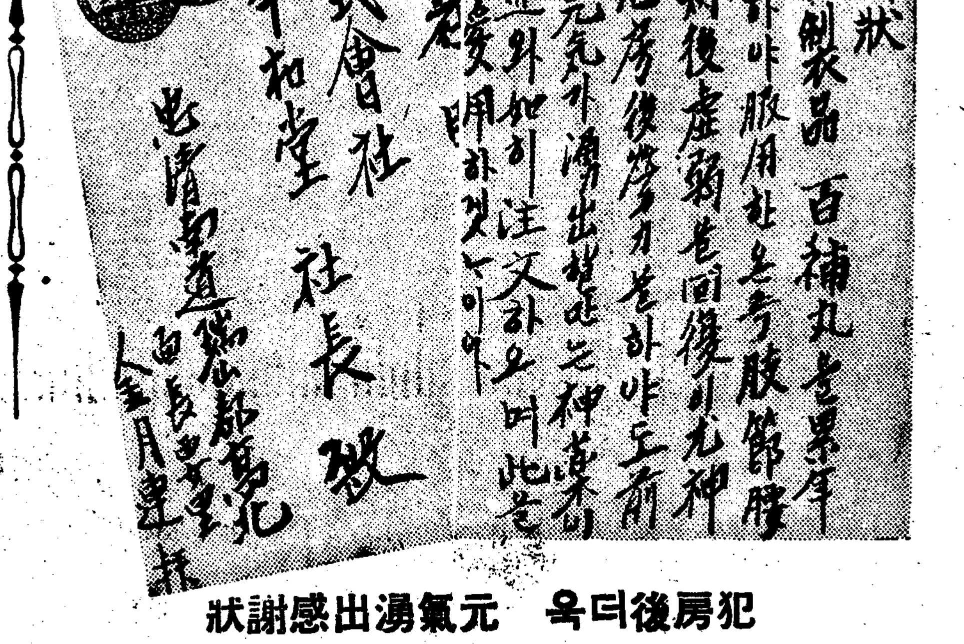
販賣特約

地方의 特別히 信用確實한 病院이나 醫生이나 藥局이나 洋藥局에特約販賣를許함(有特別有利하신條件)(一年後라도實價로返償함)特別히 實効確實한 藥인故로 醫師나 醫生에게 特約販賣를目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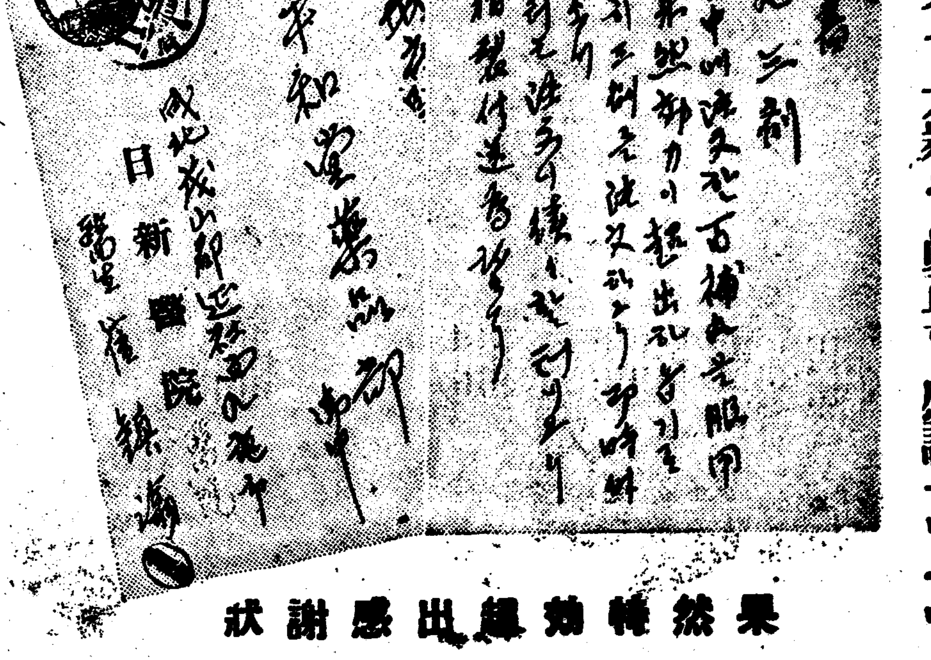
信用販賣高朝鮮第一

三百間의大洋屋

果然果然 特効大効 元氣湧出 한다는 山積의 感謝狀



犯房後더욱 元氣湧出感謝狀



果然特効續出感謝狀

事實로 조흔 補藥은 大衆의 眞正한 感謝를밧는다

보기와는 딴판! 『초』에 약한 양자기

첫대 잔금간것을 사지말일 / 음식도 초친것은 상극

생철그릇은 아모리 조화도 보기에 까지지 못하고 또 녹이 잘나서 대무나 부정하야 집니다 그러키때문에 생철우에다가 법랑(琺瑯)이라는 약을 발러서쓰는데 그것이 즉 양자기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역시 고상치는 못 하나마 허드레로 사용하기에는 아조좃습니다 다만 잘못 쓰면 그 법랑이 녹아서 음식으로 들어 가기도 쉽고 또 법랑이 벗기어 저서 못 쓰게되기도 쉬운것이 적지안한 결점입니다。양자기를 살때나 주의가 필요합니다。이아래 거기대한 주의를 몃가지 소개하겟습니다

첫재 법랑이 떨어저서 쇠가 드러난것을 사지 말아야합니다。그런 그릇은 차라리 보통의 생철그릇보다도 못하게됩니다。둘재 떨어저지는까지는나지안하엿더래도 잔금만 죽죽 진것도 사지 말아야 합니다。그 금으로 물이 새어 들어 가면 곳 밋바닥 생철에 녹이 슬어서 법랑이 죄 떨어지게됩니다。셋재로 법랑이 얇아야합니다 부른 것은 사지 말아야합니다。밋바닥으로 물이 스며들고 또 잘 깨저서 쉬 상하게 됩니다。넷재로 법랑이 골고로 한결가티 칠하야 지지 안코 여기 저기 불균일하게 칠하야 진것은 사지 말아야 합니다 두꺼운 편은 조치만은 얇은 편은 쉬 상하게 됩니다 법랑이 얇은가 두꺼운가 는그빗을보아서 곳 알수 잇습니다。얇은것은 빗이 아모윤기업시 하얀데 두꺼운것은 좀번쩍번쩍합니다。그럼으로 법랑이 불균일하고 안한 것도 일견에 잘 알수가 잇습니다。즉 그 빗이 서로 차이가 지는 까닭입니다。

×

그러나 어떠한 양자기든지 몹시 부듯드리거나 를 세 뜨거운게 하여서는 금이 나거나 약조 벗기어지기가 쉬운것입니다。될수 잇는데로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그뿐이 아니라 법랑에는 란 베코레 용해(溶解)되기 쉬워서 윤기가 업서지는것은 물론이요 심지어 시납으로 전부 벗기어까지 집니다。떡구나 초에 약하고 그중에도 초친 음식을 넣코 될때 대한층 약합니다。그런데 그법랑이 용해 되는 산화(酸化)안티몬이라는약이 딸아서 용해되야 나옵니다 그것이 위생상으로 그다지 조화고할수 업는 물건입니다。그러니까 양자기에 무는 음식을 끄리는것도 좃치안흘이요 또 초친음식을 담아 놋는 것도 조치안습니다。될수 잇는대로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그리고 양자기그릇은 흔히 재나 모래로 닥는데 그것도 조흔 방법이 아닙니다。조히에다가 비누를 칠하야 살살 지워도 잘 지지 안는것이 아닙니다。

×

양자기 중에는 뜨거운데 벗기어지지 안는 종류도 잇고 또 초에 벗기어 지지 안는 종류도 잇스나 그것은 모다 특별한 약을 바르어서 맨든 것입니다。보통 우리네가정에서 사다가 쓰는 양자기는 지금말한바와 가티 모도 뜨거운데나 초에 잘 벗기어지는 것들입니다。

남자되기를 원해서 우울한『코베크』양

『체코슬로바키아』나라의 육상경기선수 『코베크』양이 남자 행세를 하게되엇다는 소식은 벌서 전해드린바이지만 『코베크』양은 아니『코베크』군은 그뒤 좀더 완전한 남자가되어보겟다고 또한번 수술을 바덧답니다。그런데 완전한 남자가되어보겟다고 남성적특징보다 여성적특징이 만히 드러나 기어코 남자가 되려면 생명이 위태하다 하겟답니다 그래서 허는 수업시 이제는 남자도 아니요 녀자도 아닌 섭섭하지만 불완전남성으로 일생을 지낼밧게 도리가 업시되엇습니다 그런데 이소문이 도구라파、미국에 퍼지자 미국의 어떤 운동흥행업자는『코베크』군을 미국에 초빙할 계획을 세우고、우선 군에게 일금(?)백불을 바치겟다고 통신을 대엿다합니다 완전한남성전향이 불가능하게된『코베크』양은 우울한 나머지로『하겟다』『안하겟다』의 엇던대답도 안코잇다합니다。

學校通信簿 ② 신체검사란에대한 리해와주의

城大小兒科研究室 李聖鳳

일본내지서는 평균표 준수가 어든수자로서 비평하는데 죽그수자보담터하면『甲』비슷하면『乙』적으면『丙』으로기입합니다。그러 점점증가하는 상태에잇다고 하므로 이것은 망연한생각이나 우리조선에도 점점증가하지아니할까 생각합니다。다음 개평(槪評)이라는것이 잇는데 이것은 어떤것이냐하면 문부성에서 정한것인데 중요표준은 신장체중의 가(價)를일변전과 일변두의 아히를 비교하던지혹 다시 신장으로체중을제(除)하야 고도흉위에도 주의할필요가 잇습니다 흉위의수자가 적은것은 또마 흉위의 발육이불량하며 대체에잇서서 특(特)때문이므로 발육상조치못합니다。특히소아에 흔히보는 무력성체질(無力性體質)이 잇서 구간(軀幹)이 좁고길며갈비대(肋骨)가 처저서흉곽(胸廓)이 세장(細長)하고 늑궁(肋弓)이 새에생기는각도 (角度)즉상위각(上腹角)이 예각(銳角)이됩니다

단히 들립니다。속히치료해서완전한 니로해두면 그다음은 충치될염려가 업지만 통한히 그대로두면 여러개가 상하게됩니다。이충치의 유무가 아희의건강상태에 밀접한 관계가잇는것은 이중학자간에도 인정되여잇습니다。미국가튼데는 학동니를까지 주의하게되어 학교에서일제히 체조와가티 니닥는것을가르치닌다 그런데 이런시설이업는우리조선에서는 가정에서 더욱 주의할필요가 잇다고생각합니다。니빨이상하고 고르지못한것도 아히의충치가 원인되는때가 만흠으로 아못조록 속히 치료해야됩니다。충치가잇던지혹 니빨이 고르지못하면 자연히저작(咀嚼)에도 관계되므로 례사롭게보지말고 아희때에 철저적으로 치료하며교정술(矯正術)로써 완전한 치렬(齒列)을 배두어야됩니다。

우에말한것들외에 신체검사중에는병과이상이란 조목이 잇습니다 이것은 검사한결과를 가정에주의식킬조목인고로 그것에 무슨 주의가써잇스면 속히 전문의사의 진찰을바더 치료해야됩니다

특히 만흔것은 편도선의종대(腫大)와 선양식증(腺樣增殖症)등 입니다。전자는 상당히 치료해두지안흐면 때때신열이나고기관지염에 걸리기쉬우며 호흡선신장익때는 입으로 발생하며후자 즉 선양식증때는 입으로 호흡하며 잘때에 입을 벌리고코를 골며 두통이감금 잇습니다、또 학교에서 주의력의산만으로 학업의 성적이불량해집니다 그러므로 이런아희는 의사에게보이는것이조흡니다。

幼稚園巡禮記 ⑧

桃花幼稚園

따뜻하고 따뜻한 봄이 오련는 이쪽 저쪽 동산에
꼿이 핍니다
개나리와 진달래 얼굴 내밀고
빵끗 빵끗 우스며
손짓합니다

먹꼿을 차저주엇다고 선생님들과 원아들이 무한히 반가워 한니다

유치원은 산우에 놉히 자리를 정하고 개나리 봉송아 꼿들이 란만하게 피엇습니다 아히들이 부르는 노래와가티 정말 얼굴을 해죽이 내밀고 빵꼿 빵꼿 웃는듯싶습니다 사진을 벼히려고 마당에 열을 지여 세워노흐니 아이들이 잘백허덜나고 좃습니다

이번원유회가 전보다 떡자미잇고 유의한노리가 되기를 김병숙선생님은 지금부터 바란다고합니다

孔德里幼稚園

이유치원도 언덕우에 놉직하게 올나안저서 마치 원두막비슷하게 뵈입니다

원아는 사십삼명이고 선생님은 도정숙씨한분뿐이나 실습생들이 여러분이 도아주시어 그리 고달픈일은 업으시다 고합니다

바로 마당에서 고양이가쥐잡기 노리를할때입니다 약한자를 도아주려는마음이 아히들께 강렬함에는 놀나지 안흘수업습니다 쥐가 고양이에게 잡히게될 즈음에는 모다악을쓰며 발을굴으고 마음을 조립니다

쥐와고양이노리가 끗나고 율동유희 시간이되어 선생님한분이 풍금치시는대로 아히들은그 곡조에 마치 새줄 슬읍 가지가지의 재조를 부립니다

생각하면 신긔하고 사랑스럽이조 집에서라면 어머니나 할머니앞해서 엉석을부릴 네다섯살·먹은 애기들까지도 제차례를 알어서 척척 잘해나갑니다

◇……寫眞 上은 桃花幼稚園 下는 孔德里幼稚園

우리 차지

누님이 캐온나물만키도하이。
달래는 장아찌를 맨드러먹을까、짜두기를 당가먹을까。
소리쟁이는 국을 끄려야지。
꼿다지、지칭개는 무처먹고、쑥은 래일모래 떡해 먹자꾸나。
([illegible]사람 원수홍)

마천루의 모험

『뉴욕』이야、『스마이로』『빌딩』이라던 미국뉴―요―크에잇는 세계에서 제일놉흔집이라는것은 누구나 아는바이지만 그놉흔곳 대가에서 내려다본다면 세상은 사람도 아솜아솜 할것입니다 그러나 저엇어라는것이 무어이지 어고사라는것이 벽을 벌리자처럼 라고다니며 유리창을 닥는사람도 만습니다 다 그뿐인가요 신문잡지사진반은 하늘에 놉히배배찍은손하 마천루(摩天樓)의 사진을찍을 바기위하야 사진에보는 바와 가튼 일대모험을 하는수도잇습니다

학의정가

소변이자주마려

問 소생은늘변이심합세 남자인대 삼사일전부터 국부가놀자며 소변이 마려우나 잘나오지도안코 또자웁니다 자력치료법을 가라처주십시요 화류게에 임차는일이 잇습니다 매독이 안일까요 매독같은 전염되면 메칠후에 발생됩니까 (安東 金生)

答 급성림질인것 갓습니다 속히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치료밧게하십시요 자가치료는 업습니다 매독은 감염되면 이삼일내 혹은 삼개월에 발병하나발병치안코 수십변후에 발병하는일도잇스니 혈액을 검사하야보면 확실할것입니다

大學病院 伊藤內科 朴秉來

童話 포수의아들 (二)

金哲洙

소변은 불상한 기려기를 살려준것이 넘우도깃버서 그날은 딴산양은 하지도 안코 불상한 기려기를안고집으로돌아왓습니다 그리하야 그부러진상처를 떠운물로 씨처주고 고약을부처주엇습니다 그랫드니 그뒤 맷칠만에 기려기는 훈두둑하고 나래를 펄치드니 그만 방안에서 날어 밧그로 나가버렷습니다

소변은 기려기가 인제는 상처나어서 날게된것을 몹시반가워햇습니다 그러나엇전지 기려기가 나려간것이 몹시섭섭햇습니다 기려기는 놉히놉히 하늘로올나가드니 그만북쪽으로 아득하게 살어젓습니다

×

그때이나라에는 큰전쟁이 일어낫습니다 그것은 이웃에잇는 아조영악한도적의 무리가 군사를 거느리고 이나라서울에 처들어와서 넘금님군사와 크게싸우고잇섯습니다 넘금님은 크게 근심하야 수라도 잘잡수지안코 잡도주무시지안햇습니다 그리하야 엇덧케 도적의군사를 처서물나칠 도리는 업슬가 하고 신하들과함께 의론을 햇습니다 그랫드니 그때엇던신하가 이나라에 활잘쏘기로 제일가는 포수가 잇다는말을 넘금님께 말햇습니다 그랫드니 넘금님은 범우도 깃버서 그러면곳 그포수를 불너오라고 명령을 나렷습니다

명령을바든 군사가 포수를다리고 서울에일으럿슬때엿습니다 도적의군사는 그만넘금님의 성을둘러치고 세살먹은왕자님을붓잡어가지고달어나는때엿습니다

포수는 그것을보고그만 선이 하늘가티 나서 전후를 이저버리고 말을달녀 도적의군사를조첫습니다 그제야 넘금님은 놉흔다락에 올나서서 그것을바라보며 저게 쫏차가는 도적의군사를 쫏처가는게누구이냐고 겨레셧는 신하의게물엇습니다

신하는 그사람이 활잘쏘기로이 나라에제일가는 포수라고 말햇습니다 넘금님은 그말을듯고 『아― 엇더케 저사람이 왕자를 빼아서왓스면』하시며 한숨을 지엿습니다

포수는 그만 도적의군사를 쫏차 활을쏘면서 그놈들의 섯갓가히까지 닐홀엇습니다 그때벌안간 랏던말이 압으로푹 꺼구러지며 포수는그만 깁히몽을 굴속에떨어지고말엇습니다 그것은 도적의군사들이 파노흔 함정이엇습니다

그리하야 포수는 할수업시도적의군사에게 사로잡혀 분한눈물을뿌리며 그놈들의 섬안에끌려들어가 곡간속에 갓치고말엇습니다

넘금님은 그포수가 왕자님을 빼아서가지고 오기를 고대고대햇스나 꼿꼿내포수도 돌아오지안흠으로 그만락심을하야 엉엉울고잇셧습니다

신하들은 크게놀나 여러가지로 회의한결과 날으군사를 모와가지고 도적의섬을 치기로작정햇습니다 그리하야 그동안넘금님께말한뒤 넘금님을 모시고군사를몰아 도적의성을향하야 떠낫습니다

도적의군사들은 왕자님을 붓잡어다가 성가운데잇는 제일놉흔탑꼭대이에 돌기둥에다가 빗그러매여노코 그것에는 황금해여든 도적의군사가 한놈이직혀서고잇섯습니다

明暗【九】

玄卿駿 作 / 金[illegible] 畫

어느못 내스가에 버들개아지가 날룰에 솟어시 튀처나오고 풀양상구공이리가 방긋이 얼리자 마을에 봄비는 비야흐로 지터오고 잇섯다。

알게뗌이에서는 방금이하는 농부들의

『이랴―어뎌루―』 소리가 그윽한 봄풍을 깨처주고 잇섯것만 김죄수네는 매일 봄가차를으로 정안만 섯가시게하고 잇섯다。

오늘도 돌재아들 석규는 소주에 얼큰―하게 취하여가지고 방갑이할 생각은 꿈에도업시 맛침 집에 들어온 형에게 대들며 한바탕 찬홈을 걸엇던것이다。

『형님 금변엔 나를 부려먹을 생각은 아예 단념하시우』

진규는 아니꼬아서 잔뜩 눈을 지르뜨고 흘겨보앗다。

『흥』

동생은 코웃음치며

『대단히 아니꼬운 모양이로군요』

하고 입을 비죽거리며 돌아안젓다。

형은 급시에 달려들어 잡어 살릴듯이 노려보앗스나 할수가 업는지라 머리끗까지 치민분을 술재 식히고

『석규』

하고 얼마간 좀 어성을 나추어서 불럿다。

아우는 대답도업시 히뚝 돌아다보앗다。

형은 어섯편 우숨까지 지으며

『글세 싸홈은 싸홈대루 한다세치구 금변일은 일대루 시작해야 하지안켓니?』

넘우나 똑하지아니한 형의태도에 석규는 이숙히 형의얼굴만 바라보다가 자못우수운듯

『흥』

하고 재차 코웃음치며 트라짓다。

형은 떠 왈육내야 활웃수가 업섯다。

『에기 망할자식』

하며 아우의 엽구리를 또려저라하고 발끼로 거덕찻다。

『아이구!』

하고 석규는 엽구리를 웅켜잡고 업드렷다가 그만 벌떡일어나더니 대번에 형의면상에달려들엇다。

『어놈아! 왜 때리나?』

『아―니 이런』

둘은 서로 안스고 뒹굴며말도 업시 황소색기처럼 씩은거렷다。

연방에서 가족들이 달려들어 겨우 말려노코보니 둘의 의복이라고는 하나 성한것이 업섯다。

『이놈아 이 변변스런놈아。네가 될 헤가 날 때리니? 응 이놈아 이 낫반대기가 소가죽짝보다두 떠 두꺼운놈아。』

아우는 이를 부득부득 갈며

『뭐이 어쩨?』

형은 떠 달려들지는 못하고 그저 푸들푸들 떨기만하엿다。

『뭐이 어찌다니? 이놈아、속담에 동생넌이 엉덩이질 한다구、네가 될 헤기에 이배짱이냐? 이놈아。네놈을 이때까지 벌어메인건 누구냐? 그러구뉘 신세루 입부가느니 똥칭가느니 하며 야단치구、그우에 처인지 놋기명한지 한것까지 어떠가지구 개다리질이냐? 이 빤빤한 놈아!』

형은 숨찬듯이 씩은거리며노려만볼뿐아모말도 못햇다。

아우는 터한칭 긔세를돕혀다

『그러구두 금변에두 또 나를 부려먹자구? 대체 사람을 알기를 어떠케 안단말이냐? 소위 형이라구 식히면 으레히 될줄알지만 이놈아 나두 벌이 잇는놈이지 허재비는 아나? 아재비가 생각는것만큼 조카도생각는다구 인젠 부러먹기두 하직이다。형? 흥 형이 다―뭐냐? 인젠 네가 나가서 탑을 잡구 방갈이두 하구 호미찌루도 잡어야한다。』

형은 참다못하야 재차 달려들엇다。

『에기 도적가튼놈』

오틈오틈 떨고잇던 가족들은 압뒤에서 허리를 끌어안고 말렷스나 연약한 녀자들만으로서는 어찌할수가 업섯다。

그때 마츰 밧게서 판귀가 들어왓다。

『옵바 큰일낫서요。얼는 좀말려주세요』하며 순옥이는 판귀에게 딱 매달렷다。

판귀는 넘어나 구의나는 둘의행동에 첨이라도 딱 뱃고십흔것을 겨우 참고 위선 마주들어집은 둘의손목을 뜨터노핫다。

거기에 긔척수도 마츰 들어와서 둘은 하는수업시 시무룩하게 물러섯다。

녀자들은 적우히 마음을 노핫다。

판귀는 자긔방에 들어가서 책상압해 마주안자 오래동안 무슨생각인지 하고잇다가 그만 벼에 기대안즈며

『썩어가는 무리들!』

하고 저혼자 중얼거렷다。

春こそ美肌を作る絶好期！

봄이되면女子는、아름다워진다는데、참말인지몰라?
어제도H씨를맛나서
『당신살결은마치大理石과가티艶艶하구나』라는稱讚을바덧지만서도、참말그래꼭그것은、레―도구레―무를쓰는까닭이야。
언제던지봄이되면여드름、부룸、기미가생기거나白粉거츠름으로、困難을바덧지만今年은、조곰도그런氣色이업서――
斷然愉快한、일이야 레―도구레―무는、참으로우리들의펫트야――
아이참너무조와서、혼자중얼거렷서호호호……

レートクレーム 레―도구레―무

レート化粧料本舖・東京・平尾贊平商店

國境都市의 가진特殊性

湖岩

新義州라면 金銀密輸를 먼저 聯想케한다 淸國이 만흔것은어느國境都市에나 흔이 보는 現象이로되 近年新義州에서 金銀密輸가 盛行한것은 엇을것이다 한참적엔 男女老少가 모다 黃白에 눈이 벌개서 밀행하엿다 그러다가 失敗한이도 잇지마는 굉장이 一攫千金에 成功한이도 잇다 傳聞에 依하면 金銀노롬에 갑자기 致富한이가 數十人에 達한다 하거니와 그네들 中에는 新義州市街에 벽돌洋屋을 짓고 新興의 豪華를 자랑하는이도 엇다 昨日의 富豪들이 오늘날와서는 一朝金融業者가 되어 窮然히 아름다운 꿈을 現實化하는 奇蹟을 보여준다 아무리 經濟蕭條의 現實이라 하지만 國境方面이 아니고는 보기 어려운 現象일것이다 어쨋든지 新義州는 [illegible]

新義州에잇서서 그러하다 내가 아주 어느國境都市보다도 [illegible] 新義州는 國境都市이니만치 오고가는 사람이 끈임새가 업지마는 거기 永住하는 이는 드물다 新義州는 商工業 中心의 都市로 볼때 그럴것만 마시 엇다 歷史와 古蹟을 가지지 못하고 鄕土의 美를 가지지 못한 凡俗한 平凡的都市이니만치 愛着을 자아내는 鄕土的 魅力이란 아주 缺如하다 그럼으로 오늘날 人口가 五萬에 達한다하나 그들 永住者가 얼마나 될는지 새로 왓다가 다시 떠나고 모인는 날어가 버린다 不得已하야 新義州에 家族을 두어지 거기가 살고십퍼서 사는이는 드물다 그러나 新義州에서 數十分동안 배로가면 李太祖의 威化島가 잇고 自動車로 三十分만 가면 [illegible]

[illegible]

★…文=壇=偶=感…★

戶籍업는外國文學研究家

③ 崔載瑞

文壇이란 文學에關한 土國인데 小數의作家와 그보다만흔 批評家와 그보다 적은 文學研究家도出現하고 大學研究室에선 方今 伊太利文學 西班牙文學 체코스로바키아文學等等 모든方面의 研究家가 未來의文壇人을 꿈꾸고잇슬것이다。그들은 著名한外國作家가죽으면 訃電이報道된다음날아츰 新聞紙에 執筆을잡고나와 祝文을읽고 그들의 五十年忌 或百年忌가되면 祭主가되야마이크로써압해서 그들의 (이것은 印國王의 謀植은아니외다) 讀者로서 構成되여잇다。이 土國을 所有하고 支配하는 數三人의 쩌—나리스트를 文壇人 가운데에 包含하는것이 너무도 無禮한듯하야 遠하고、또 出版主로도 우리文壇과는 因緣업는存在이다。萬一이條目이려다 一一히統計數字를채운다면 우리文壇의 國勢調査가 完成될것이다—아차 한가지이즌것이잇다。그것은 外國文學研究家라는 無籍者의一群이다。그들은 世界를放浪하는 집시—모양으로 文壇을 이곳저곳彷徨하면서 들마잇스면 한쪽끼여들려고 들먹들먹한다。大體 그들의 正體는 무엇인가?

그들의本業은 英文學 或은佛文學 或은獨逸文學 或은露文學의研究이다。또한 옛날부터 支那文學研究가잇섯고 새로는日本

頌

德文을 朗讀한다。그러나 보도듯도못한는 이름이라 祝文이나頌德文쫌으로는 大衆의 印象에남지안는다。或은 外國新進作家의 作品을鑑賞하고、理論을紹介한다 그러나 大多數의讀者는 이새로운손님을 엇더케 待接하얏지몰라 어름어름하는동안에 어느틈자최를감추고말뿐더러 그作品과 理論이 이곳文壇과 무슨關聯이잇는가하는點에對하얀 쓰시는분도 흐리멍텅하다、그外에 無籍이라는 흠가분스러운 身勢를利用하야 그들은 節마추어무엇이나 닥치는대로 도맛는다。대관절그들의立場은 어데잇는가?

야모리 文壇이奇人國이라할지라도 나는英國人或은 佛蘭西人或은 獨逸人의文化를위하야 일하오! 할마한 동키호—테는업슬것이다。그래도 못는다면 朝鮮을위하야 朝鮮社會의啓蒙과文學的敎養을위하야 努力한다고對答할것이다。그러나 그對答은엇전지 豪氣가업다。그리고 外國文學研究家는 國民性을超越한

國

藝人이라는 點을도準備되여잇스나 그의理解가 容易치안는지차 마음을엇지못한다。이리하야 文壇國에잇서서의 外國文學家의 正體에 關하야는 實質的以上으로 그들自身이 意識치못한다。그라면 依然은 밧듯시 그들의出處와 來歷을 調査할것이다。

여기에 過多한 文學的趣味와 若干의文學的素質을가진(그것을 가지지 안는少年이잇스랴?)中學生이잇다 假定하자。勿論그는 將來文學으로써 立身하기를決心한다。그러나 그는不幸하게도 家勢가 貧困하고 多幸하게도頭腦가 不足하다。그는中學 高等學校 大學文科를 거쳐엇시 逓麗할수 잇는 家庭에 태여낫다。이러케 몃해동안에文學書修業한다면 文壇에地位를占領할수잇슬터이지—그러나그는 作家生活이라고 말로듯기만한 萬浪世界로 뛰여드러갈勇氣는업다 그는六分의不安과 四分의自信을가지고 몃해동안 古典世界에서逍遙한다

劇研에보내는말

—十回公演批判을中心으로—

(五) 全一劍

=演技=

演技에關하여서 痛切히느끼바는 亦是新派의影響이 朝鮮新劇의牙城이라고할 이곳에까지 치밀어왓다는點이다。

『村先生』의演技이와『어머니』의俊一이의役을마튼 宋在魯에게서 우리들은 이러한傾向을明確히發見할수가잇섯다。其外에도演技者로서 劇研의 古參者라고할 李雄氏 金福鎭氏에게서도 이러한『리둘』 間或發見할수가 잇섯다。그러나 宋在魯氏의 그것은 가장 甚하엿다。

宋在魯氏의 演技는 臺辭에잇서서의『新派口調』와『新劇口調』를 對照할때에 前者가 얼마나 形式的이오 利己的인가를 如實히 말하여주는 한『標本』이엇다。

이것은『村先生』第二幕에잇서서의 漢模이의 演技에서 가장 露骨的으로 나타낫다。漢模이가 올면서 漢模이와 다투는 대목에서부터 漢模이에게借金이 잇다는말을 듯고 밧가워서 아버지를 漢模하며 뛰여나가다가 玉井이와 마조치는 대목까지의 宋在魯氏의 演技는 全然新派의 그것이 아니엿다。

劇研의 演技者들로서는 이러한 傾向을 徹底로 排除하여야할것이다。

筆者는決코 어느程度까지 形式的으로 完成된 朝鮮의新派調를 全的으로 否定하는것은아니다。우리들은 압날에잇서서이『新派口調』를 合理的인 한形式으로서 利用할수도잇슬것이다。그러나 이것은 明日의問題이다。新劇을 完全히 習得하지못한今日의우리들로서는 이러한 傾向의 侵入과는 徹底히싸워야할것이다。

그러나 孟晩植氏의 宋先生、金福鎭氏의 玉井、林秀鳳氏의水邊之이의 妻와 紛伊는 傑出한 演技엿다 特히 孟晩植氏의 宋先生은 日本의 어느 新劇演技者들의 演技水準에準하여도 遜色이 업슬것이라고밋는다

李雄氏의 漢模이와 吳愛菜氏의 玉姬의 完全한 失敗는 作者와 演出者의 罪도만치지만은 演技者의 熱誠이不足하엿다는데도 起因되는點이만헛다 李雄氏는 一種의『趣味』와『押しがき』라는 演技者로서의 長點을 가지면서 朝鮮語調에서 버릇되엿고집작되는 朝鮮人이아닌 악손과 제쓰추어를 亂用하엿셧다。吳愛菜氏의臺辭는 音響條件이조흔 府民館에서 잘들니지안햇다 臺辭가들니지안는다는것은 演技者에게對한 最大侮辱이라고한다 에로큐—슌에對한研究를 만히하여주엇스면한다。

李光來氏의容九의 失敗는 劇作家로서의 李光來氏에게는 오히려 조흔試鍊이라고생각한다。

[illegible]

要는照明、

무엇무어해도 劇研의가장큰隘路는 資力이다 裝置、小道具、衣裳、照明等…

[illegible]

〔木…蓮…花…필…때…면〕

〔文…學…閑…談…集〕 ①

文學과不道德 (上)

白鐵

「文學과 倫理道德」이라는 題目을걸고 이小說을 執筆하는것이 當然할는지 모른다!하나 文學의 모든 問題를 道德하게 間接的으로 取扱하는것보다는 언제나 明瞭하게 그리고 한角度에서 論明하는것을 希望하고 잇는 나로서는 여기서 元來 에 생각해노흔 問題보다는 훨신 直接的인題目「文學과不道德」을 選擇하기로 決定하엿다!

文學과 不道德性!이 題目이 가르치려고하는것은 勿論 단순히 文學에 잇서서는 善과 聖人과 天使만이 描寫될것이아니오 同時에 惡魔와 惡德과 罪惡된 天使도 描寫되여야 한다는것을 意味함만이아니라 文學은 本來에잇서 善과 道德과 聖人의 立場에 서잇는것보다는 根本的으로 惡과 不道德과 不聖의場에 가지고잇는것을 말하고 잇는것이다—

事實 文學에잇서 한개의 道德律을 決定해노코 그가운데安住하려는 態度만치 文學을卑俗化식히는것은 업다!「描寫한 文學은 善良한 感情으로 制作되는것이다!」라는「쫄레이크」의말은 지금 이런 事實을大膽히 指摘한말이엇다

文學을 道德律에 拘束식히려는 努力은 무엇보다도 文學을 卑屈케하는 人間을 卑劣한 俗物로 만드는 것이다 人間이란 決코 一個의

善良한 道德律에 滿足하려는단순한 動物이아니다 人間은 善良한것이 잇는것이라 하면 同時에 가장 殘忍性이 잇는動物이며 가장 善良한가하면 意外로 가장 陰險한것 가장 公正한가하면 그와反對로 가장 不正한 人間이다!

그와가티 複雜無比한人間、自由自在의 人間인까닭에 그人間은 그것이 自身인 境遇에도 스스로 制御하고 統制할수업스리만치 그의 存在를 하나의道德律에依하야 決定할수는업는것이다! 그러기에「몬테뉴우」가튼 사람도「나는 이세상에서 自身과가티 怪異하고 奇蹟이만흔것을 본일이업다! 다른 사람들은 習慣과 歲月때문에 그의 온갓奇異때문에 놀내는것이나 나는—自身을 알면 알수록 더욱 나의 奇異에 놀내는것이다。나는 自身을 알수가업다!」고 自身에對하야 恨歎하고잇다! 그러한 千態萬象의 人間의 모든것을 무슨 單純한 道德律에 拘束을 식히지안코 完全히 發揮해가는곳에 文學 의 自由스런 生命의 萬能이 잇다고 본다!

그러기에 人間의 그複雜多端한 性格、心理、行動等을 文學이 取扱하는때 잇서서 勿論 나는 그가운데서 善과 惡의部分을 全然無關하려는바는 아니다 또한 作品가운데서 善良과道德에 關한文句를 全然除外하려고 主張하는것도 勿論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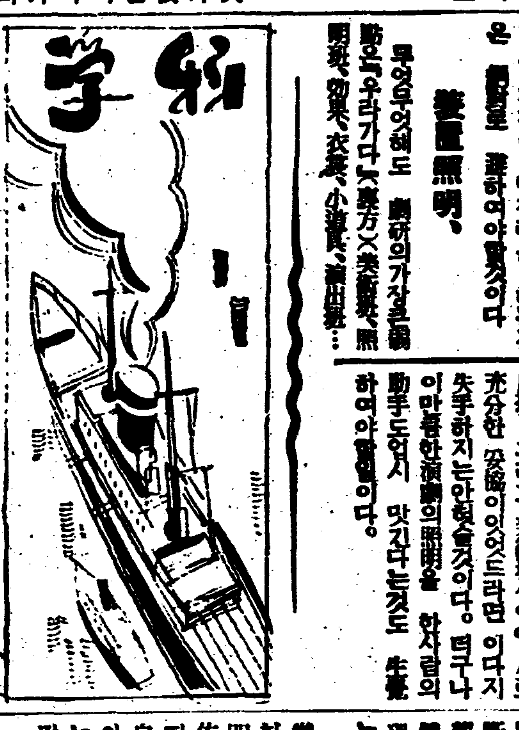
다만 여기서 내가말하고 십흔것은 문저도말한바와가티 文學이란 善과惡의 두가지중의어느편에 각각은가하면 前者보다는 後者에 각각은 因緣을갓고 잇슴에 不拘하고 極히 不幸한일은 그것이 우리文壇에 잇서는 文學을 될수잇는대로 道德과 善良과中庸의 道에 隣接식히려는 實로 僞裝해야할 習慣을 가지고잇는까닭에 그不幸한 現象에 대하야 全面으로 否定하려는 心情을 나는 表現하고 잇는것이다 今日의 우리文壇의 그道德的現象에對하야는 直接으로 우리들 自身이 그責任을지는것보다는 우리들의 먼저前時代에잇서 性善說을主張하고 極樂과 天國과地獄을 說定 한 聖人들에게 그罪責을 돌니는것이當然하다고 하야도 何如튼 그不詳한 現象을 文學을 爲하야 轉換식히는것은 우리들 自身의 任務가아닐수업다!

말하면 問題는 過去에잇는것이아니고 現在의 우리들에게 잇다!는것 우리들은 그聖人의性善說을 언제까지 重視할것도업고「아리스트테레스」가「性格은善良하여야한다 性格에는 矛盾이 잇서서는안된다!」는 敎訓을 崇고하야서 그러한 文句를 如제까지 우리들文學의 性格으로 삼을것이 업다고생각한다! 藝術의不道德에 對한近代의 必要가잇다! 이런必要를 늣기면서 나는 우리들의 조선文壇에 對하려고 한다!

四象醫學說批判

◇그理論과實際에關하야◇

⑤ 李乙浩



四象醫學에서는 모—든藥材를 各其類型에따라서 區別하엿다。人蔘은 少陰人의게만쓰이고 麻黃은 太陰人의게 地黃은 少陽人의게 應用된다고 規定하드시 모—든藥材를 이런式으로

區別하여서쓴다。가령太陰人藥은 이외의 다른類型人의게는 絶對로쓰지안는다는 것이다。그러므로 藥材는 그類型에 所用되는外에는 쓸수업다는것이 곳 이藥材濫用不許의 法則의 眞意이다。

藥材濫用不許라는말이 藥材를 單味로 쓰라는등은아니니 이點은 相對醫學과 조금도다를것이업다 單味거나 複味거나 何等相關이 업는것을誤解하여서는 안된다。

藥性에는 有毒한者가 貴여旨을 밧나니 이것이 곳藥物의 偏性을 認定하게 되는所以다。肺脾肝腎의 四臟器에 對하야 各藥物은 各其偏性을 따라 區別되나니 自己의게 利로운者라도 남에게는害롭다는 生剋의理致로 藥能은 發揮되는 殺令 無毒淡味의 食料五穀가튼者라도 多少偏性이업지안흣니 害複則有毒한 偏性이나타날것이다 人生은 食五味而生하고 食五味而死라드니 生死가 오로지 五味에잇는것보다 有害無毒의區別이란 元來難中難事가아닐수업

四象人의分類

四象人의 類型分類는 類型不變의 法則과 例外不許의法則을 前提로하고서 規定한것인데 四端論中에서 李濟馬는 如左히말하엿다

人類가 天稟으로라고난 臟腑性理에 네가지가잇스니

肺大肝小者를 太陽人 肝大肺小者를 太陰人 脾大腎小者를 少陽人 腎大脾小者를 少陰人이라한다

이말을 드듸어서 생각하면 四象人의分類를 肺脾肝腎의大小만을가지고 規定한듯하지만 이런定義를 理解하자면 原著의臟腑論을 보아야한다。

첫재 肺脾肝腎의 四臟器를 單純히 形態學的器官으로만 看做할것이아니라、이들의生理的機能을 더욱重要하게보아야 할것이다。肺脾肝腎心을 五臟이라하는데 그中의心臟器는 一身을主宰한다하야 優劣偏倚가업는 中立的器官으로보지만 肺脾肝腎의四臟器에는 各其偏性이잇스니 或은肺氣가强盛하야 肝氣를꺽기도하고

腎의水氣가 强盛하면 脾의火氣(四象과五行論參照)가 衰弱하여진다는等의 性能을 認定하게된다。그러므로 肺

心(主宰者)
- 肺의系統—皮毛、頭腦、耳、舌、胃脘
- 脾의系統—筋、背膂、目、乳、胃
- 肝의系統—肉、腰脊、鼻、臍、小腸
- 腎의系統—骨、膀胱、口、前陰、大腸

肺脾肝腎을 形態學的概念으로解釋하면 한아의 우숨거리지만 形態보다도 機能에 重點을두면 人體生理機能의 綜合的統一現象을 理解하는데 어떠한 힌트를 엇기는 어렵지안흘것이다。

둘재 肺脾肝腎은 各自가여러臟器를 의글고잇슴을 아러야한다。心은 一身의 家長格이요 四臟器는 家長下에잇는 네개의 家族이요 그餘外것들은 여긔에 따르는 從屬者이니 肺脾肝腎은各自가 외떠러진 홀로 서잇는것이아니라 心의一門下에서 統制잇는 큰집을 維持하고잇는것과 갓다

[illegible] 여긔서 우리는 肺脾肝腎의槪念이 [illegible] 알수잇다。[illegible] 서 이야기하기로한다。

셋재 大小에對한 槪念이니 大小라고하면 [illegible] 그形態만을 가르키는것으로 알기쉬우나 機能의 强弱이라거나 偏性의 强弱이라거나 內容의 盛衰라하든 여러가지槪念이 混入된것으로 보지안흐면 안된다。以上의 三要件을가지고 筆者는 다음과가튼 表를 만드러보앗다

四象人 \ 臟腑	肺의黨	脾의黨	肝의黨	腎의黨
太陽人型	實(强盛大)		虛(弱衰小)	
少陽人形		實		虛
太陰人型	虛		實	
少陰人型		虛		實

讀者社交室

▲기—타 中古品讓渡코저하오니 希望하시오면 左記住所로 來訪하시옵기伏望합니다 安國洞四番地 白烏寫眞館

▲生이朝鮮監理敎新生社發行聖經單卷註釋을 購讀코저하오나 絶版이되여 엇을수업스니 本人의要望에 同情이有하신분이게시면 社交室을 通하야 住所氏名을 알게하여주옵소서 그리하오면 郵便料金을添附하야 請求하겟사오며 限一個月限하고 읽어본後에다시 返呈하겟습니다 平壤 K生

▲電話光化門二四五六番을 實用하실분에게 讓渡코저하오니 有意하신분은 該電話로나 淸進町一九一番地로 問議하여주시요 淸進町一九一 李生

▲十六七歲의 學生二名에게깨끗한房을 下宿식히겟습니다(父兄의監督付託도 밧겟습니다) 阿峴町一六九의一 裵福男

▲貴欄께서 家庭敎師를求하신다드니 如何決定하엿습니까 若于今未決이오면 弟가志望하오니 有意하시면 直接通知하여주시기를 仰望하나이다 右志望者는今年에 某女子高等普通學校를 卒業하엿습니다 市內惠化町七一ノ一九 金友琴方 丑生

▲二十二日 夕刊에 一少女에게 寄託한 生은 市內某專門生이온바 家庭敎師로 가기를 願합니다。姓名、住所는 在社하니뭇잇스면 通知하여주시옵。

▲지난四月二十三日附 朝鮮日報讀者社交室內、市內一少女에게寄託 高等女學校三學年入學試驗準備를親切히식여줄이분이잇스니 有意

需要하시기는 左記로 直接問議하야주시요 誌北町五番地三十六號 宋■植

▲求人 弊店에서 男女老少를不問하옵고 洋服職工을求하오니 有意하신분은 技量 年齡을 記入하야 急速히 通知하야주시옵소서 慶州郡梨浦面 東西洋服店

▲辯護士試驗準備者들에게 必要한 參考書의 答합니다

憲法=佐佐木一 日本憲法要論
民法=
1、鳩山秀夫 日本民法總論
2、同 日本債權法總論
3、同 同 各論
4、三潴信三 物權法提要(上下)
5、穗積重遠 親族法大意
6、同 相續法大意
刑法=牧野英一 日本刑法
商法=
1、竹田省 商法總則
2、同 商行爲法
3、松本烝治 會社法講義
4、同 保險法
5、同 海商法
6、田中耕太郎 手形法
民訴=岩本三ケ尻 新民事訴訟法要論(上下)
刑訴=矢追秀作 刑事訴訟法要義
國際法=山田三良 國際私法
經濟學=福田德三 經濟學原(三冊)

以上은 受驗者들이 通讀하는것이고 法律一般의 基礎知識을涵養하는데는 早稻田法律講義錄이必要합니다 其他試驗問題集附屬參考書등은 受驗界、法律雜誌等을 紹介됩니다 成功하시요 (定州 金文植)

新刊紹介

▲幼年畫報 四月號 平壤府西城里一〇ノ二ノ四九 一千年社 發行 振替京城一八七一〇番 定價十五錢

▲正音 第十三號 朝鮮語學雜誌 發行所 京城府仁寺町一五二 朝鮮語學研究會 振替京城九〇二〇番 定價十錢 送料二錢

▲月刊野談 第十八號 發行所 京城府明治町二丁目八八 癸酉社出版部 振替京城二一八二一番 定價三十錢 送料二錢

▲創作 第二輯 發行所 東京市淀橋區上落合二丁目六二四 朝鮮創作社 定價二十錢 總販賣所 京城府壽松町四五 世紀社 振替京城二五〇一八番

▲獨學通信 第四十九號(月刊) 發行所 京城府和泉町六 朝鮮高等普通學會 振替京城八八九五番 定價一部五錢

▲運輸界 四月號 運輸時局問題 新春特輯 大邱業者紹介號 發行所 京城府花園町七九 運輸通信社 振替京城二〇九七六番 定價五十錢

海外短信

米國으로건너간「호르캄·븨—너스」

「거—라·호르캄·븨—너스」十六世紀 [illegible]

[illegible]

帝都 マネキン 來る
마 네 킨

四月十九日부터二十八日까지 (十日間)
京城 三中井化粧品大會 六階會場
四月二十二日부터三日間
京城鍾路 和信化粧品部

新流行의 목美粧料

「부—스」에 出席하는 日活스타— [illegible]

絕對로白粉下를使用치안코 普通固煉白粉의 1/3의分量으로놀낼만치 아름다운목化粧이되는最高級의목白粉

花井蘭子氏의말슴

목白粉으로 至今까지 여러가지 使用하여보앗지만 이것이면 滿足하다고 생각한것이업드니 最近〃부루스〃를使用하야 비로서 白粉의良否를 알엇습니다〃부루—스〃야말로 全혀 목白粉으로서理想的化粧品입니다 그귀치안흔白粉下가 全혀所用업시 크림과가티 잘먹는 普通固煉의三分의一量으로 훌륭히 아름다운化粧이됩니다 普通固煉白粉과가티 살결을 거칠게하지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白粉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르몬(含有)
ブルース
부 루 스

=試用瓶進呈=
二錢切手三枚封入하야申込하면試用瓶으로送付합니다 (朝鮮日報名記入)

白色 日本髮인분께
肌色 一般婦人들께
黃色 洋髮하신분께
¥ 1.00
三倍의使用

百貨店、藥局、小賣商化粧品部에서販賣 하나品切인때는直接左記本社로注文하실 시요送料는本社가負擔합니다

大阪市東區南久寶寺町三丁目
東洋發賣元 チイユーカムパニー
振替大阪○八三二五番

黃昏 【71】

韓雪野 作 安夕影 畵

부상 (三)

늘려진 남은 벨트가 조방기(紡績機)바퀴에서 미끄려버서진 것을 보자, 학수는 곳 그리로 달려갓다.

천정밋 놉흔곳에서 일분간 이백회의 속도로 돌아가는, 라인·솨프트(軒輪)의 바람쌀에그만 어긋나 버린 벨트는, 버서진대루 츠렁츠렁 · 춤을 추고잇다

익숙지 못한 사람가트면 으레히 기게의 발동을 정지시키고 그것을 다시걸어야 하지만 학수는 멧번 치러본 경험도잇고 또 잠시라도 기게를 정지시키면 당당이 떠허노코 눈을 부라리기 때문에 그는 그대루 벨트를 다기여다가 조방기 바퀴에 걸첫다。

바퀴에 걸처진 벨트가 다시 급속도로 돌아가기시작한 순간 학수의 외팔이 그만 그 속에 맥혀 버렷든것이다。

정님이가 거진 무의식한중에 황겁히 달려와서 삐롱아선 직공을 틈으로 오숫 오숫한 눈을 던젓슬때에는 학수는 인사불성에 빠저서 게거품을 우구 물고 나자빠저 잇다。

그러할중에서도 조방실 담당은 거이기게적으로 학수의 팔을 물어다니는 바람에 재처 삐껴진 벨트를 손싸게 다시 걸어노코 이편으로 뛰어오며

『주의를 안하니까 그러치。물을 가저와 냉수를……』

하고 학수의 팔과 몸을 문질르며 당황히 서도는 직공들에게 소리놉게 외친다。

한직공이 물을 가지러가랴고 할때에、준식이가 마조 외첫다——

『얼른 의사를 불러와야지』

그리며 준식은、어깨에서 째여저 팔목에 찻창 감긴 학수의 로동복소매를 찾아뻬기고、그의 외팔을 끌고루 살펴본다 학수의 팔은 감아케 젤리고 튀여나온 피스텅이는 기름투성이 팔, 어곳 저곳에 점점히 떠잇다。그것이 아직 채내에 잇든 관성으로 팔닥 팔닥 뛰는것 갓고 따스한 온기까지 가지고 잇는것가티 직공들에게는 보엿다。

『얼른 의사를 불러와요』

준식은 학수의 가슴에 귀를 대이고 심장、뛰는 소리를 들으며 또다시 이러케 외첫다。

그때 공장주임이 달려왓다——

『어떠케 돼서, 부러젓서?』

여례 기색한것이 알떤 업시 학수의 몸을 어루더듬고잇는동뭘이가 주임에게 무둥 소리친다。

라범이(키보)、기례(걸렙이)들도 학수의 팔과 몸을 문질르며 당당과 주임에게 외사부르기를 재촉하엿다。

『아니 팔만야?』

하고 주임이 허리를 꾸부리고 드려다 보는것을,

『팔이고 뭐고 외사부터 불러와야죠』

하고 동뭘이가 막쏘아부친다。

그는 공장에 오래잇서서 이러찬변을 여러번 보아왓슬뿐아니라 최근에는 직공의 생명 또는 생활이라는 문제에 대하야, 몹시 감상적인 인정과 인도를 느끼고 잇는터이다。

『응, 괜찬어!』

하고 주임은 그제야 정희걸라 간다。

『인제 곳 의사가 올거니…… 어서 일을해』

키작은 조방실 담당이、둘러선 사람들을 보며 흐젓을 하나、한사람도 움지기라 하지안는다。

『벗서 문질러……우선、살우야할일이지』

준식은 허리띠를 풀어서 학수의 어깨를 졸라매며、혼자말모양으로 중얼거리고 잇다。

『뼈는 다치지 안흔 모양이지?』

동뭘이가 부축해 주며 말을 죽죽 흘리고 잇다。

『응, 절골(折骨)은 안됏슬라인데 어깨뼈가 어긋낫것 갓애요……이러쿠, 뼈가 좀 내밀리지 안햇서』……

준식은 동뭘을 보며 세상스레히 가슴이 떠가워짐을 느꼇다。그와 사이가 버러지고, 점하야 경계까지하고 잇는터이나 그러나 동뭘에게도 가륵한지를 을고 압하하는 거룩한피가 남아잇다!

『눈가 수건 가진것 업서?』

동뭘이가 죽 둘러선 사람에게 말하는 얼골을 둘러다。

그얼골에 흐르는것은 맹렬이아니엇다。

『여게 잇서요』

하고 정님이가 하아케 빼롱수건을 얼른 동뭘에게 내민다。

동뭘의 솜씨잇는 피료든는 학수의팔에 손수 빠른 재수건이 멀어서 수건을 고개를 쭉 멜구며 빼 동여서버린다。

굴은 눈물이 방울 방울 딱바닥에 떠러진다。

『욱——』

부지중 느껴지는것을 그는어로 꺠물고 가슴을 쭉 부여안엇다。하나 그래도 저희기가어러워다。학수와 여러사람의 모양이 한데 얼어서 아른 아른 눈에서 흘 즐다。

『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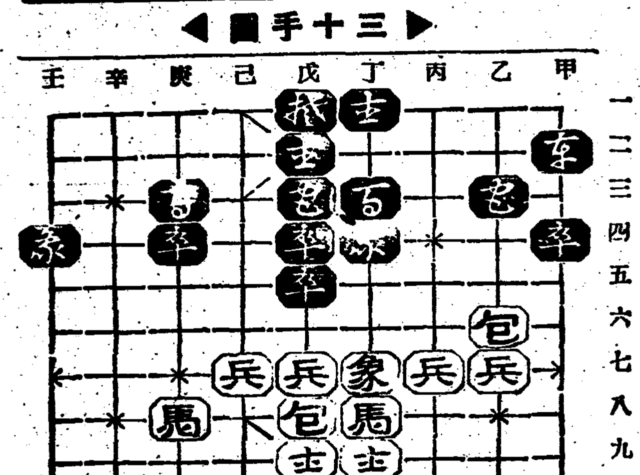
그는 그만 다둘씀을 처나와버렷다

將棋名手對局譜 (四)

本社主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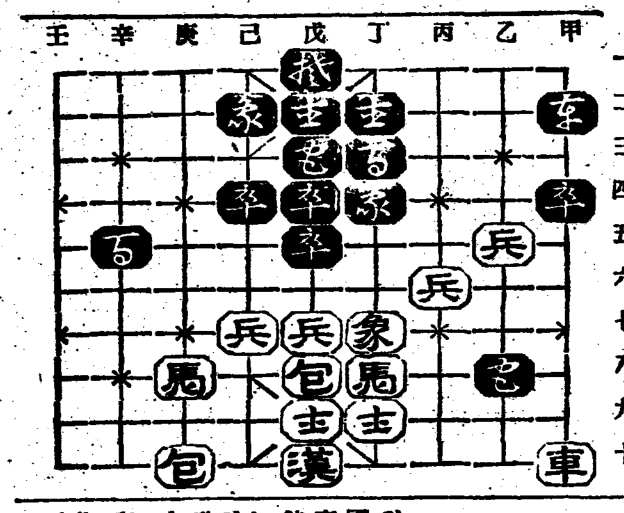
手先滿 一兵減 李在鳳 對 李明輝

◀三十手圖▶



◀四十手圖▶

乙六包─乙七
庚四[illegible]─己四
乙十包─庚十
庚三[illegible]─辛五
丙七兵─丙六
丁一[illegible]─丁二
乙七兵─乙六
[illegible]─己三
乙六兵─乙五
[illegible]─乙六



海外映畵消息

「獨逸」

▲『우리-·훗스트』氏는 『씨-네·아리안쯔』映畵『惡戱』를 『요하니스탈』의 『토필·할트』兩氏이다。

▲『한스·쎄르렛트』氏는 오미포-노映畵 『情熱』을 『노이파베르스베르그』의 『우-파』撮影의 監督을 始作하엿다『알프레히트-』氏 『카-린·할트』孃 『한스·젱커-』氏 『게르다·마울스』孃等이 主演이고 撮影은 『게올크·크라우제』氏이다。

▲『테라』社의 『하-달·프로더쇼』는 『갈레산더·보르코프』氏로서 『스텐카·라-진』을 監督製作케하엿다。脚本은 『콜트·하이늬케』氏이고 主役은 『한스·아-달버-트·폰·슈레루』氏이며 이바케도 『베-라·엥겔스』孃 『루-돌프·브라헤』氏 『오라프·박한』『안톤·포인트나-』氏 等의 助演이다。撮影은 『프란·와이마이야』氏。

▲『우파-』社 『오이포-노』映畵에서는 同社『렘메르호-프』撮影所에서 『奇妙한客人』을 撮影하고잇다。『시나리오』는 『게르할트·람프레히트』氏 『크르트·호이자-』兩氏의 合作이며 演出은 『칼프레히트』氏이고、『헴만、슈페르만스』氏 『아리버-트·쉿샤-』氏 『알프렛트·아벨』氏 『루돌프·크라인로게』氏等이 出演하기로되엿다。

▲그리고 一月下旬에서 二月上旬까지 封切된 重要映畵를 들면 다음과갓다。

『보-덴제-에서 戀愛를 하지말어라』이것은 『알파』映畵인데 『우-파·레아롬、쿠르뮤스데단』과 『리라니아·파라스트』에서 同時에 封切되엿다。舞臺에서도 相當히 人氣잇든 『레-너-』『헤르게·로스웨게』氏를 처음으로 『로-키』에 主演식힌 音樂映畵로서 『하·네프·케르나-』氏의 『시나리오』이고 『칼·하인쓰·월프』氏의 監督인데 大體로 娛樂映畵로서는 常道를 밟은것으로서 平凡한 가운데도 大衆的魅力은 잇는것이다、俳優로서는 『로-스웨게』氏가 가장 秀逸하엿고 助演에 『헴만·슈-메르만스』氏나 『마리아·메-링크』孃도 比較的成績이 조와갓다。『유-고-·카베린스키-』氏의 撮影、『헴만·뷰루』氏의 裝置、『프란쓰·그로-테』氏의 音樂이다。

映畵界短信

라인할트의 次作 호프만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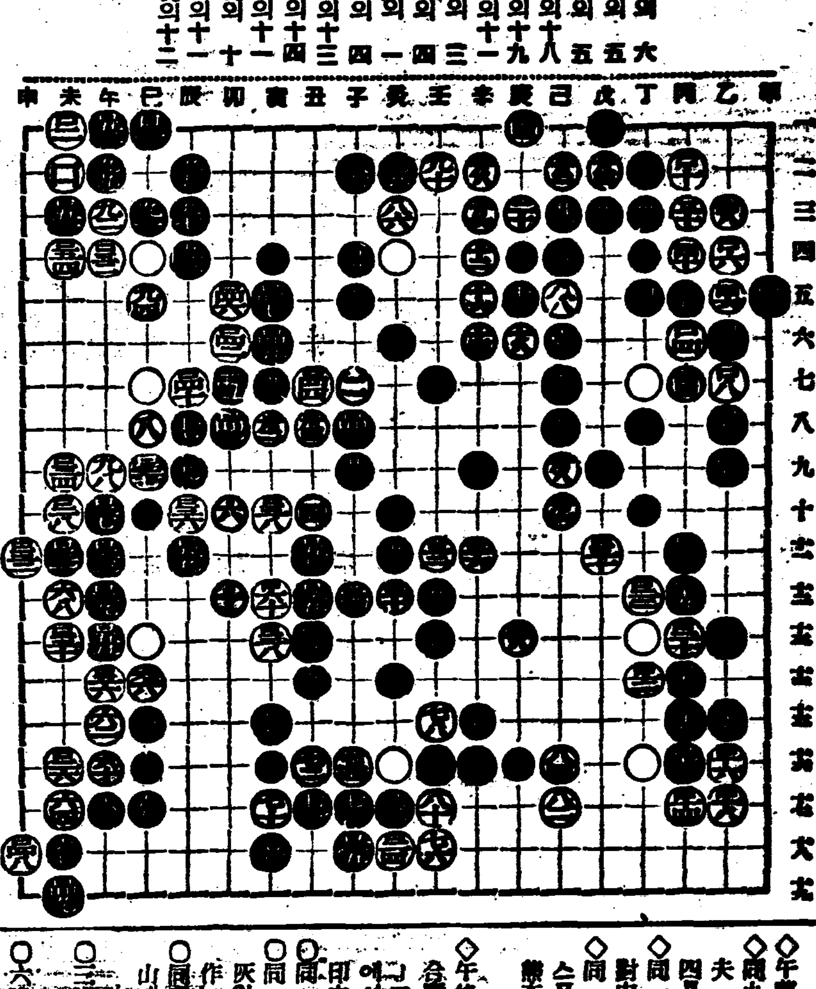
쉑스피어의 『한녀름밤의꿈』을 成功的으로 映畵化한 막스·라인할트는 그뒤를 이어 그 역시 쉑스피어의作品인 『十二夜』를 映畵化하기로 決定하얏더니 突然『호프만』의이야기로 變更하얏다。그것은 數名의 歐洲俳優를 쓰기 爲해서 便宜上 政定한것이라고 傳한다。

파푸리카 이레느·도지레이主演과 지앙·더·리물르監督으로製作된 音樂喜劇이다。新星지레이의 潑刺한姿態로부터 나오는 魅力은사람으로 하아금 醉치아니치못하게 한다고한다。

圍碁對局譜 —10—

本社主催

白 李會輝
黑先 張貫文



●一三五 寅의六
○一三六 卯의五
●一三七 寅의五
○一三八 申의十八
●一三九 未의十九
○一四〇 戌의十一
●一四一 未의三
○一四二 午의四
●一四三 午의一
○一四四 未의四
●一四五 午의十三
○一四六 午의十四
●一四七 丑의十一
○一四八 寅의十
●一四九 辰의十一
○一五〇 寅의十二

蔡極文氏評日

黑이 丑의十一로 끊지말고 寅의十一로 頂點을 衝하고 辰의十二로 挾擊하면 白이 路窮을 면치못할것이나 黑白間互先인즉 一便만 엇지 指摘하리요 此處에난 重疫을 旣覺하엿시니 요다음 奇變이 從何而出來요 第俟二實物지어다

曆

四月二十六日(日) 閏三月(陰)壬辰大(初六日)
戊寅·土·畢·開

●嫁娶移徙裁衣上樑辰時開市에宜함

●立夏五月六日(陰十六日)

音樂消息

모기렙스키- 提琴獨奏會

朝鮮아-티스트·가이드·컴패니의 招聘으로 저有名한 提琴家 『알렉산더·모기렙스키-』氏의獨奏會가 今二十五日밤七時 府民館에서 열린다 氏는日本에와잇는 外人音樂家中가장著名이놉흐며 現在東京高等音樂學校提琴科敎授로 氏의門下에는 우리朝鮮人學生도몃사람잇다 피아노伴奏는『로히데베르히』孃。曲은伴奏外에『쇼팡』『도빗시-』『리-스트』의曲을 獨奏하야 異彩를나타낼모양이다。會費-A三圓、B二圓、C一圓。

라디오

二十五日(土曜)

◇午後六時 兒童劇『寒食날』——景 配役 아버지…金小泉 어머니…鄭仙女 順吉(아들)…朴仁植 金蓮(큰딸)…金順姬 玉蓮(작은딸) 洪敏義 萬吉…金富董 京城어린이放送會 指揮 金虎俊 效果 金洛升

◇同六時二五分 時事解說 徐椿

◇同七時卅分 講演(藥草에對하야)

◇同八時 流行歌 金蓮洙 一、紫霞歌 二、農夫의봄노래 三、봄업는十年 四、대打鈴 五、배떠나라 六、미나리打鈴

◇同八時卅分 遊覽歌外 一、유산가 二、경발림 三、사설방아 四、금드렁타령 五、처녀가 閔亨植 宋亨泰

◇同九時 映畵이야기『運河의微風』 柳寅殷

第一放送

◇午後六時(東) 노래공부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

◇同六時五五分(東) 커퀜트、토픽스

◇同七時三〇分(大) 어린이와家庭의저녁

◇同九時 時事解說

二十六日(日曜)

◇午後一時 野球實況(邦語)——京城그라운드에서中繼—— 阪急對府廳、金鯱對殖銀

◇同六時 하-모니카獨奏 一、고지롱 二、瀨戶의風景 三、勇敢한水兵 四、支那가방 五、天然의美 六、『敵幾萬』行進曲 崔英植

◇同六時二〇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〇分 心田開發『孔子의時代와思想』 安寅植

◇同七時三〇分(東) 바이올린獨奏 파피아노 一、아다지오와푸-가 G短調(가) 빠-作曲 (나)旋律 그룩크同 二、파아노獨奏 루-마니아舞曲 마르로-크同 三、二重奏 奏鳴曲 르프랙트長調 作品十一第一 힌데미트同 바이올린 시본·골드베르그 피아노 리리·크라우스

◇同八時 歌曲 一、雅樂 二、羽栗 三、編栗 四、編 五、太平歌 河圭一 金蕙紅 玄琴 金雨聽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二十五分 流行歌 一、봄노래…金壽麟作曲 二、나그네의사랑…金壽麟 三、내가만일女子라면…金素雲同 四、봄비오는밤…金素雲同 五、洛東江七百里…車東緣同 伴奏 DK管絃樂團 全水南

◇同八時四十五分 關山戎馬外 一、關山戎馬 二、山念佛 三、기-난아리 四、打令 崔貞子

◇同九時五分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 (가)短歌 名妓名唱 (나)瀟湘八景 沈相德 鼓手 丁元燮

◇同一〇時 講演(朝鮮文藝放送)『在滿同胞에게』 朝鮮總督府事務官 金大羽

第一放送

◇午前六時卅分(大) 英語講座(五) 全田忠藏

◇同十時卅分 趣味講座 田中初夫

◇午後二時(東) 婦人講座 人生과植物(四) 理學博士 三宅實一

◇同二時五十分(東) 野球試合實況 東京大學野球聯盟리-그戰 —明治神宮外苑野球場에서中繼—

◇同六時 만도링과기타 京城만도링合奏團

◇同六時卅五分(東) 基礎英語講座(七)

◇同六時五十五分(東) 커퀜트토픽스

◇同七時卅分 趣味講演 田園都市物語 內務省都市計畫委員 石川榮耀

◇同八時廿五分(東) 라듸오小說(上) 黑에드가·아란포作 德川夢聲

◇同八時五十五分(大) 抒情歌劇 大阪桃谷演藝所에서中繼 夢 本居長世作曲 테너 增永丈夫 소프라노 渡邊하마子外 合唱 大阪放送交響樂團 指揮 아사히코라스 本居長世

二十七日(月曜)

◇午後〇時五分 將棋打令 一、將棋打令 二、바위타령 三、소춘향가 四、흥타령 五、달거리 崔貞植 笑琴 李忠善

◇同三時一五分 主婦時間『家庭平和와主婦의覺悟』 黃信德

◇同四時 全朝鮮都市對抗蹴球戰—京城그라운드에서中繼—

◇同六時 童話『아버지를차저서』 金尙鎬

◇同六時二五分 經濟解說 高永煥

◇同七時三〇分 講演『現代人과肺病』 金秉瑚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楚漢歌 二、唱劇調 赤壁歌 宋萬甲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청사초롱 二、섬색시 三、金剛아리랑 四、시악씨열여덟 鼓手 金世俊 李花子 伴奏 DK管絃樂團

◇同八時三〇分 洞簫獨奏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鳳雀吹 柳東初 技鼓 韓千洪

◇同九時五分 野談『枯骨』 申鼎言

第一放送

◇午前七時〇一分 小鳥의樂園

◇同九時三〇分(東) 노래의工夫 메스트르八〇頁 [illegible] 스트 四月號[illegible] 長田直子

◇同一〇時四〇分(東) 講演 對中國[illegible] 陸軍中將 松井七夫

◇同一一時一〇分(東) 講演 스포-스醫學의使命 醫學博士 東[illegible] 熊本醫大敎授

◇午後〇時二〇分(東) 野球試合實況 東京六大學野球聯盟리-그戰—明治神宮外苑野球場에서中繼 但 野球업는경우〇印中繼

◇同一時二〇分 新興[illegible]의午後

◇同一時五〇分(東) 一、제지厌와싸호는男 W·슈미트보原作 竹[illegible]和夫譯 大阪協同劇團

◇同二時二五分(東) 三、大江山뎃이야기 濱村米藏 作 日本俳優學校劇團

◇三時(東) 洋樂콘서트 各音樂學校卒業生優秀者

◇六時(大) 이야기 로빈손漂流記 田中賢司

◇七時三〇分(東) 바이올린과피아노 바이올린 시몬·골드벨 피아노 릴리-·크라우스

思想事件의本據

咸南道內의被檢者 實로四千七百名

昭和五年以來昨年末現在로 起訴處分도一千二百

【咸興】 오래여 변간 처녀지대로잡겨오든 북도에도 한번신 사상의 수입을 보자 가장급속한형세로보급하기시작하여최근수년간 함남도(咸南道)는 거이각군을 망라한 대규모적 적농 그리고 막사과(莫斯科)와 직접련락을 가지고보는 적로(赤勞) 공청(共靑)사건등이 끄리에 끄리를물고 일어나 거이사상외진원지이라는 늣김을 주게까지이르럿다 이제 지난소화오년도부터 작년말까지 최근륙년동안함남도내에서 발생한 중요한사상사건으로 피검되여 긔소된 총결산을보면 총검거자수는 四천륙백구십륙명이며 그중에서 긔소(起訴)처분을바든사람이 이천삼백륙명으로 총검거인원의약반수에 달하며 사상의계통별로보면 공청(共靑)사건관계 륙백륙십일명 적로(赤勞)일천이백구십팔명 학생(學生)사건 삼백이십륙명이며 적농(赤農)등기타가일천구백삼십일명으로 무엇보담도 로롱 농민동의 계초적운동이 대부분을 점령하고잇다 그리고이를다시 각경찰서별로보면 함흥경찰서의 칠백오십이명이 단연수위를 점하고잇스며 정평(定平)경찰서의 오백륙십이명 단천(端川)의 륙백일명 홍원(洪原)서의 오백이십일명 영흥(永興)서의 오백륙명 북청(北靑)서의 사백륙십명인데 그중에 소정의형긔를 마추고출옥한사람이 사백구십일명이며 사상전향자도 이백오십구명에 달한다고한다

元山左翼勞組事件 最高五年役求刑

二十四日咸興地方法院에서 言渡는오는五月一日

【咸興】 긔보한바와가티 지난이십사일원산 좌익로동조합사건주범 남궁운등칠명에 구형이잇섯는데 그날오전 열한시부터 미전(米田)판사와 장정(長井)검사 렬석하에 개정되자 판사로부터 피고등 주소씨명과 가족형편재산조사 교육정도등을 뭇은후에 곳 남궁운부터 사실심리에들어 열두시반까지 남의심리를 필하고 오후한시반부터 최동선(崔東宣)등여섯명을 심리한후 오후네시에 다음과가티 구형이 잇섯다 언도는오월일일이라한다

南宮軍(?)五年 林元錫(?)一年六個月 崔東宣(?)四年 朴在烈(?)一年六個月 蔡熙龍(?)三年 朴鄕德(?)二年 申在英(?)一年六個月

治外權撤廢압두고 金融社移讓不可

在滿無資産同胞農民에게는 滿國金融合作社無用

【山城鎭】 발전도정에잇는 만주국의 객관적정세로보아 다년간 현안으로잇는 치외법권(治外法權)은 잡행적(暫行的)으로 철폐케되여 오는칠월일일로서 제일계단인 과세권(課稅權)이 시공서(市公署)에 이양(移讓)되게에따라 동포금융회(同胞金融會)도만주국금융합작사(滿洲國金融合作社)에이양하기로 되엿든바 최근 정관상위(定款相違)가 문제가되여 좀더 고려할필요를 늣기게 되엿다는데 원래 금융회는 조선총독부로부터 동아권업(東亞勸業)을거처 변자금백오십만원의 조달을바더 재만동포농민 들에게 농자금의편리를 도하기위하야 무잉분한자에게도 다마상호련대보(相互連帶保)로서 대부하여왓스나 만주국 금융합작사는 그조직을 중산계급을 조합원으로하여 부동산의 담보로서 중앙은행(中央銀行)에서 대부하게 되여잇슴으로 재만동포로서 리용키 어려운일인동시 동포만주진출에 만흔지장을 주리라하야 목하 각관계당국에서는 선처책(善處策)을 강구중이라한다

紅軍討伐佈告

通化司令部에서

【山城鎭】 만주내에 치안숙정(治安肅正)을 목표로 오지비적토벌(奧地匪賊討伐)에 정력을다하고잇는지금도 동변도일대(東邊道一帶)는 원래비적과 사상계(思想界)의 소굴지여서 각지에서 때때로 시가침입(市街侵入) 인질랍거(人質拉去)등을 빈번히하고잇는바 최근통화현(通化縣)토벌사령부에서는 우군관구사령관(于軍管區司令官)、보성장(保省長)등의 협의한결과 포고문륙천매와 삐라이만매를 작성하야 비행긔로서 동변도일대에 산포하기로 되엿는데 그내용은 홍군간부포획(紅軍幹部捕獲)혹은 사살한자는 그중거를 통화사령부(通化司令部)나 현공서(縣公署)에 지참하는자에게대하야 상(賞)을주고 그반대로 부상비(負傷匪)나 도주비(逃走匪)를 은익도주(隱匿逃走)시기는자는 통비자(通匪者)로 간주하고 단연엄중한 처벌을주겟다하엿스며 도일방으로 통화경찰서(通化警察署)에 명하여 중요도로급 도선장(渡船場)에 통행하는 인마를 철저히으로 조사를시행하기로되엿다한다

旅人宿에投宿中 百餘圓을盜難

【泰川】 평북 태천군 강서면 룡[illegible](泰川[illegible])은 지난 [illegible]일 대천장날에 대천우시장에서 중개도중 소를 팔러왓다가 날이 저무러서 대천면 [illegible] 삼번지 려인숙 백양의(白楊[illegible])의 집에서 다른 소장사와가티 자든중 소판돈 일백이십여원을 가방채 도난당하엿는데 소관서에서는 방금 비밀리에 범인을 수사중이라한다

杜絶되든京龍 自動車通行開始

【江西】 경성룡이가삼룡도로는경성부터 리원정(梨院町)과 시흥군자면 고흥리(高興里)부근과 광주군 삼평(三坪)은 진흙으로 인하야교통이두절되여 잇다함은 루보한바이어니와 지난삼십일부터는 다소완화되엿스나 아즉도 경긔자동차(京畿自動車)도록 도로가완전치못함으로 일반에게 막켜되여 강남일대(江南一帶)에 끼치는 불편이적지 안타고한다

北靑郡六臺에서 私立普校期成

卽席에서萬餘圓醵集

【新浦】 함남북청군 신포면 륙대(六臺)는 북선에유명한명태어산지로서 호수구백여에 인구사천팔백여가 거주하는 대어촌이나 교육긔관하나업는중에도 교통이불편하여 학령아동수가칠백여명에 달하나 겨우십리이상되는 홍원군 룡원공보(洪原龍源公普) 운포공보(雲浦公普) 령무강습소(靈武講習所)며 면내에는 신포공보(新浦公普)등에 이백명가량이 통학하고 남어지오백여명은 오직아배아삭다는것으로 배움에굴주리여 사지사방으로 헤매이나 배울곳이업서서 도로에 방황하는형상을목격한 당지인사들은 얼마전에당지유지 리종삼 변종성 김치순 최호순(崔浩淳) 金慶準 崔浩鍾씨외제씨의 발긔로 사립보통학교를 설치하자는의견이 돌게되자 일반주민들은 의구동성으로 이에찬동하여 즉일로 당지원계(元契)강당내에 백명의주민이 집합하야 서재국(徐載國)씨외 의미심장한개회사로긔성회를 조직하고 제반사항을토의한바 회장에 서재선(徐載善)씨 부회장에 김규환 범종성씨가 피선되고 사업진행을위하야 리사에고병권 탁회양(卓熙陽) 林熙麟씨외십오인과 고문에 김윤경(金允慶)씨외십삼인을선정하야 제반사무를담당케하고 귀본금오만원을 주민의자발적의연으로 조달케하기로 하자 즉석에서 깃붐에넘치는군중은 분연히긔립하야 너도나도하고 자발적으로 의연금이답지하여 일마상천여원에달한바 주민들의열성을 보아 예상이외의 조흔성적으로서 귀본금오마원은 무난히모집될형편임으로 불원간완성되리라고 밋는다한다

慶南道民의負債額 一億百五十餘萬圓

一戶當平均三百八圓餘로 各銀行貸付가最高位

【釜山】 근래도시와 농촌을 물론하고 중산계급이하는 급격한 몰락의과정을 밟고잇는데 따라서 느러가는것은 부채이다 경상남도리재과의 조사에의하면이월말일 현재의 도내주민의부채를보건대 각은행(各銀行)에 오천오백칠십륙마원 금융조합(金融組合)에 일천팔백륙십만오천구백원 동양척식회사(東拓會社)에 일천일백오십륙만구천원 신탁회사(信託會社)에 오백이십구만원 무진회사(無盡會社)에 구십구만구천원 전당포(典當舖)에 삼십륙마원 개인에 륙백사십칠만이천원 이외에 드러나지안흔 부채를 도내거주호수사십일만일천칠백호중 차금을할수업는 극빈자급 부호계급등약이할을 제외한 남어지호수 삼십삼만이천구백호에 매호당삼원식으로 추산하더래도 삼백이십구만이천원이여서 총계는 실노 일억일백오십오만구천륙백여원에 달하며 일호당 삼백팔원에 해당하는 놀나운현상이라한다

禁斷의關門넘는 密航者依然多數

當局의嚴重取締에도不拘하고 昨年一年間三千二百

【釜山】 일본내지도항문제에관하여는 밀항자의격증과 이에따르는 각종범죄의격증으로보아 현행규측에 결함이잇슴을인정하고 그개정의필요를 경남도당국에서도 늣기고잇는바 이제도항취체의상황을 보건대 작년도의도항자 (부산경유)팔만오천삼십오명으로 소화구년도의 십삼만이천오백삼십명에비하야 약오만이천오백명이 감소되엿슴은 극도로도항을제한한것이 원인이며 또부산잔교에서 저지당한자가 삼만구천륙백구십오명이요 수상서(水上署)에서 검거한 밀항자(密航者)가 실로이천일백삼십팔명 또 밀항하엿다가 일본내지에서 발견되여 부산으로송환(送還)된자 일천백이십이명 합계삼천이백오십여명에달한다고한다

私立中等學校巡禮 (八〇)

永生女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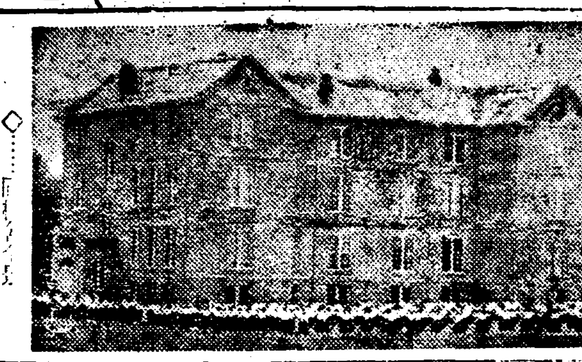
歷史로卅一有年 北朝鮮女高嚆矢

不遠財團法人도完成

咸鏡南北에잇서서 最初의女子中等程度의學校인 同時三十有年間 꾸준히家庭의文化向上과 兒童敎育의合理化에끼친바 功績이 實로莫大한 敎員養成機關인 女子高普가 바로 그것이다 이것은 밝지안어도 咸興永生女子高普가 有形無形한가운데 언지못할存在로서의 同校는 이보담도 몃倍나 몃十倍되는 偉功도 오히려 예끼지안흘것이다 咸興에서의 新昌里 高臺에 西歐의벽돌洋屋으로 姉妹校인 永生高普와 가즈런히 咸興市街를 내려다보면서 萬人의 寵愛를 集中시키고잇다 그러나 偉大한存在의 出現에는 반듯이 그에따르는 모진試練과 苦難이 잇슬수업스니 同校의 今日로 잇기까지에는 다만 남모를 辛苦와 基礎를 가지기까지 이제同校의 光輝잇는 功績을 紹介함에잇서서 同校가맛본 辛苦와 試練을 알어보자

現校長 麥愛蓮氏

同校는 只今으로부터 三十一年前 馬義太氏가 現在榮民町 申十羅의집우 人방한칸을빌러 겨우 여섯명의 學徒를 모아노코 新敎育을베푼것이 이學校의 嚆矢다 그러나當時의 世情이 封建的頑迷에굿게젓고 잇든때이라 新敎育에 對한 嘲笑와 非難 더욱이나 女子들의 敎育이란 몹서리칠만큼 슬혀하얏든것은 勿論 一種의 恐怖까지 느끼든 때엿다 閨房에 두어도 오히려 더 감출곳이 업서서 헤매든 當時의 父兄들의 積極的迫害는 더 말할것도업섯다 그러나 毒와 正에 불타는 馬義太氏가 엇지 이程度의 苦難에 견듸지못하얏스랴! 그는 괴로우면 괴로울사록 더욱 困難과 싸워가면서 學生들의 父兄들을 說服하는 한편 學生들의 入學勸誘에 晝夜를 가리지 안코 애쓴 結果 지난 大正元年에 이르러서는 겨우 적으나마 成果를 보게되야 비록 近代式建物은 아니라 校舍도 設備하게 되얏스며 學生數도 前에 比할바 아니만큼 近百으로 늘게되얏스며 다시 大正二年에는 普通科外에 高等科까지두어 가처마잇든 女子들로하야끔 高等程度의 敎育까지밧게하얏다 그러나 날로자라게되는 永生學園도 거기는 完全히 名實공히



갓추게된 남부끄럽지안흔 中等學校로서 굿세게 거름을 것게되야 昭和四年十月에는 永生女高普라는 新敎育學制에 依한 指定을 밧게되야 오는날 五百餘女生들을 담고잇는 隆盛에이르게된것이다 그러나 이러케 튼튼한 基礎와 經濟的機關을 한갓 外人들의 힘과 財力으로 運營하고잇다는 것이 귀여운 딸자식을 맛기고 잇는 우리들로서 오히려 붓그러운것이아닐가하는 생각으로서 제錦全히 『우리의永生學園』으로 굿세게 힘차게 옴지기여 나가겟다는 全校學父兄有志들의 誠意의 發露로서 昭和九年七月부터 三十萬圓의 財團法人組成에 着手하야 學父兄 卒業生 社會有志들을 網羅하야 猛烈히 活動하고 잇스니 不遠間에 깃거운 消息을 傳하야줄것이다 마감으로 現在同校에서는 特히 억센 朝鮮의母體를 만들기로 目標하야 智、德、體育의 均齊를 目하고 體育에 더욱注力하야 北鮮體育界의 指導者들 배출하여 女子體育界의 幾多의 各女選手를 내고잇스며 將來 新鮮의希望을 一身에集中시켜고잇는것을 한조고마한 자랑거리라고하야둘까? (咸興支局 一記者)

二百餘萬圓經費로 四百集團村建設

北滿濱江省公署에서計畫中 그의將來成果를注目

【哈爾濱】 북만빈강성 공서실업청(北滿濱江省公署實業廳)에서는 치안숙정공작(治安肅正工作)의 한가지로 관내각현경찰긔구(管內各縣警察機構)의 철저를 긔하기위하야 사법행정권강화(司法行政權强化)와 국내각현(國內各縣)의 자위단을 본격적으로 시설하기로되여 금년도신계획(本年度新計畫)으로 경영비 약이백사십만원을 드려 사백여집단농촌(集團農村)을 건설하기로되여 목하 치안유지회(治安維持會)를 베풀하야 관계자간에는 벌서부터준비에착수중이라는바 이부락은 미개산 불모벽지(不毛僻地)에다 건설하고 사방에철조망(鐵條網)을 둘러처서 강고한방비책(防備策)을 구하리라는바 북만에잇서서 이집단부락실현(集團部落實現)은 각방면에서 그장래의성과가 주목되고잇다고한다

鐵山邑內에火災 家屋七間全燒

【鐵山】 지난이십사일 새벽네시경 철산군철산면 중부동(中部洞)김의헌(金義憲)방에서 아지못할불이 곡간나무뎀이에서 일어나 가옥삼간과 곡간을전소시기고 린접한회신양복점과 사변칠씨집으로 불길은 옴기라고하엿스나 당지소방조의 결사적로력과 동민의도음으로 륙시반경에 진화하엿는데 손해와원인은 당지경찰서에서 방금조사중이라한다

日露拳鬪試合 盛況으로終幕

【新京】 북만권투협회(北滿拳鬪協會)주최로 이십이일 오후륙시반부터 신경긔념공회당에서 일로(日露)권투대항시합이 잇섯다하며 신경유도 류단자대、권투선수의 대항시합이 잇서서 일반시민의 흥미집중아래에 성황으로 맛추엇는데 시합성적은 아래와갓다한다

◇拳鬪六回戰 川本一(引分)田口 ◇拳鬪四回戰 咸川(三回打倒)一 ◇柔道對拳鬪四回戰 內野(柔)引分 비구보이 ◇柔道對拳鬪四回戰 吉田(五回棄權)야구보이

檢事는三年求刑 判事는無罪言渡

冤恨품은列車妨害犯에

【大邱】 심록구진 렬차의 통통은 힘드러지은 때단을 여지업시 레위버렷다고 원한품은 농민은 이를 복수하랑으로 렬차를 전복하려다가 목적을 달치못하고 드듸여 체포되여 대구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된 경주군서면 아화(阿火)리 리극제(李克宰)와 한마을에 사는 리영수(李英守)두명에 관한 렬차방해사건은 경사의 삼년징역구형이 잇섯는데 지난이십사일 강등(江藤)재판장으로부터 무죄의 언도가 잇섯다한다

人情美談一題

【山城鎭】 빈한한이웃에 약속한상사를 뜨거운동정으로서 서사 시긴 인정미담 지난십칠일 룡길선산성진북문(龍吉線山城鎭北門)외 삼도구(三道溝)에 현주류덕원(劉德源)의 삼

典當舖에强盜犯 短刀로主人을威脅

現金五十圓을强奪

【大邱】 어제사일 오전네시경되여 대구 남룡강정(南龍岡町)전당포주인 향판장길(向坂庄吉)의 집에 칼을가진 괴한 한명이 침입하야 단도로써 주인을 위협하고 현금오십원을 강탈하고 소변까지 본후에 유유히그자최를 감추엇다한다 이급보를 바든 대구서에서는 범인을 체포하고저 거리거리에 수사망을 느려노코 활동중이라는데 아즉 체포되지 안엇다한다

市場設置要望

【咸興】 함흥의 현세를보면 주로 도시적발전이 현재함남도청을 중심으로하야 그동북인 서정(曙町)과치마정(馳馬町)방면으로 발전되야 주민이 날로격증하는 현상인데 아직까지 주민의 일용품을 판매하는 시장(市場)은 구함흥의 중앙위치에만 잇슴으로 그동민의 불편이 막심하다고하야 주민들은 동지일대를 중심으로하는 시장을설치하야 달라고 열망하야 마지안는다고한다

定州驛機關區員 李道京君轢死

【定州】 정주기관구 탄수부(炭水夫) 리도경(李道京)(二七)은 지난이십삼일 오후구시경에 정주역에 근무하는동무 김재봉(金在鳳)과 가리 운전역전에가서 술을먹고 정주로 돌아오는길에 김재봉은 차시간을 미처서 차를탓스나 리도경은 차시간을 노처버렷슴으로 도보로써 돌아오다가 운전역을 상거하기 삼키로 되는곳에서 때마츰 지나가는 제철렬차에 무참히도 치여죽엇다는데 리도경은 유명한 마라손선수로서 전조선 각롱상경기대회에서 여러번의 우승을한 사람으로 일반은 리군의죽엄을 애석하여마지안는다고한다

暴風에渡船顚覆 慘!女子三名沒死

一晝夜搜索에屍體도發見못해 新乫坡渡船場의慘事

【惠山】 함남경찰부에 도착한 보고에의하면 지난이십일 신갈파(新乫坡)와 대안 십삼도구(十三道溝)사이의도선장(渡船場)에서 때마츰 신갈파시내에 거주하는 김귀녀(金貴女)는 신갈파로 건너가든 도선(渡船)이 모진바람에 전복되여 타고잇든 삼명은 모다 격류에 빠젓는데 즉시경찰관 소방조원등이 총동원하야 필사적 구조에 로력하엿스나 일주야가 되도록 시체도 발견하지못하얏다고한다

遼東、瑞華兩船 遼河通航開始

【營口】 봉산지선하북역(奉山支線河北驛)에서 경영하는 료하왕복(遼河往復)의 련락은 지난이십일부터 료동호서화호(遼東號瑞華號)이척으로 개시하엿다는데 특히 하북농장(河北農場)에 래왕이빈번한 우리형제들에게 편의가 만타하며 련락선시간은아래와갓다한다

◇船名 河北發 河南着
瑞華午前 六、〇〇……六、一〇
遼東 同 七、三〇 七、四〇
瑞華 同 九、〇〇 九、一〇
[illegible]

◇營口發 船名 河南發 河北着
[illegible]

世界初有創作美展

藝術의쪼각보를모은 帛畵展覽會

【開城】 개성부 지정(開城府池町)에 사는 김재찬(金在瓚)씨는 송도가 나흔 천재적 미술가엿스나 그는 아즉 자긔의 재화를 숨기고 불평 상해등지로 도라다니며 미술화에 전공하면서 항상 생각이 어떠케하면 형식이 새로운 미술품을 하나 창작해볼가? 하고 그래서 한번 미술계에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선구자가 되여볼가하는 야망에서 부절히 창작연구를 거듭해와섯는데 소위한바 목적은 드듸여 오늘에 성공을 보게되엿다 한다。 그리하야 오는 오월 이십칠일 중앙회관(中央會館)대강당내에서 세계초유의 백화전람회(帛畵展覽會)란 미술전을 개최하리라는바 이날은 씨의 독창적인 처녀작 일백이점이 새로운 이상미를 띄우고 공개될것이다。 백화전! 일홈부터 처음듯는 미술로서 이그림은 순전히 비단 백여색을 가지고 가의로 수공하야 요모조모로 색을 맛처 예술의 쪼각보를모은 그림인데 현재씨의 발표할 그림은대개 향토색을띄운것이라하며 그중에 『아리랑고개』나 『나물캐는處女』가튼 그림은 농촌의 「로맨틱」한 분향기를 그대로옮겨놋코십흔 상투형에 달린듯이서 만도인사의 긔대는 자못크다한다

◇寫眞……金在瓚氏

光州

全朝鮮自轉車競技大會

▲時日 五月三日
▲場所 光州公設運動場
▲主催 光州輪業組合
▲後援 朝鮮日報光州支局

新京

兒童懸賞作品募集

▲種目 童謠、童話、作文
▲期日 五月五日限着
◇主催 新京兒童敎育硏究會
◇後援 朝鮮日報社新京支局

子宮病은女性의 健康을害하고 姙娠을못하게한다

―누구던지읽으시라―

●子宮病의 原因과治療法

子宮病이라는것은 婦人의生殖器의子宮에關係되는疾病을 말하는것인데 그種類가 여러가지잇는中에도 一般이만흔것이 子宮內膜炎이라는것입니다 이病은 月經時에不注意의産前産後의 不養生、流産、難産、房事過度、或은 男子의 淋疾이感染되여發生하는것인데 初期에는 下腹이압흐고 局部附近이 뻐처지고땡기며 大小便이잘通하지안코 局部에서는 白帶下가 나오기도하고 내종에는이것이 점점惡疾이되며 白帶下로부터 黃帶下、赤帶下、靑帶下로變하며 腰痛이 나게됩니다 이러케되면 자연이 頭痛과 현긔가나며 神經過敏、消化不良으로 身體는 점점衰弱하야 모든疾病이 併發하게됩니다 또한子宮內膜炎의分泌物即帶下症의害毒은 精虫을殺하기때문에 不姙症이되거나 卵巢와喇叭管에故障이生하야 一生에子女를 出産치못하고不幸에빠지게됩니다 이외가튼病이 잇는婦人은 身體가 날로衰弱해저서 얼골에도 화색이업고 子宮이冷하고저려며 月經이不順하게되며 지금까지不和한家庭도 子女를生치못하는탓으로 차차不和하게되며 甚하면 시부모와 男便에게 소박까지맛는수가 허다하오니 하로바삐治療하여야 될것입니다 이외가튼 婦人病에 子宮病을 治療하기에는 東洋婦人의體質에가장 適合하게 理想的으로製造販賣하는 命之母가잇습니다 이 命之母로 말하면 三十餘年의 經驗을가지고 東洋婦人患者는 勿論이오 西洋婦人患者에게서도 服用하시고 子宮病을 全治하신 實例가 허다합니다 여러분家庭에 子宮病患者가잇스면 하로바삐 命之母를 服用하시고 良効에全快하시기바라나이다

대하증이全快되여 姙娠까지한實驗談

忠北鎭川郡梨月面 朴文熙氏談

前略 命之母를服用해보앗는데 氣分이조아지며 몸이健康해지며 대하물도줄고 어느듯姙娠까지하야 姙娠中에도故障업시健康히지내다가 出産햇습니다 産後에도 命之母의德澤으로 以前에는 不順하든月經이順調롭게되엿습니다 後略(忠北鎭川郡梨月面 朴文熙氏)

命之母는各地有名藥店에서도販賣하지마는 特히本舖로注文하고자하는분은 藥代金을振替東京五〇五〇番으로、또는小爲替로보내시는것이 第一安全하고便利하오나 病狀을자세히記入해주시면 代金引換으로도 發送해드리겟습니다

今日 이新聞을보시고 帶封하야 五厘切手를부처서 東京市京橋區八丁堀 命之母本舖로보내시는분에게 또는葉書로申込하시는분에게 三大醫學博士가指示하야 알기쉽게자세히쓴婦人病自宅治療書와 命之母의說明書를 無代進呈합니다

婦人病良藥

◎命之母의主治効能◎

月經不順 白帶下
子宮出血 赤帶下
下腹腰痛 手足冷症
頭痛眩氣 子宮痙攣
히스테리 輸卵管炎
卵巢炎 貧血症

‖藥價‖ 六日分 一圓 十三日分 二圓 二十日分 三圓 三十五日分 五圓

臨神經衰弱과産前産後의婦人에게大效함

東京市京橋區八丁堀 命之母本舖・發賣元 振替東京五〇五〇番 電話京橋二六八七番

"低金利의影響"
銀行預金빼여다가 土地에投資하야될가
(一)……申泰翊

▲머릿말 이題目을 잡음에잇서 먼저 밝히지 안흘수 업는 點이잇다 지난 二月廿六日 東京事件을 機로 하여가지고 廣田內閣이 들어안짐을 때에서 各地讀者로부터 將次 一般物價가 어떠케되겟느냐 또는 『朝鮮內의土地價가 더 올나가겟느냐』或은 甚至於 『오늘가튼 低金利時代에잇서 銀行에 預金하는것 보다 차라리 이것을 빼여다가 農土를 사는것이 利가 되지안켓느냐』等의 問議가 遝至하는 터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이에對한答을 함에 다음과 가튼 두가지의難點이 잇서 躊躇하엿다 即(一)이미 人爲的低金利政策이 積極化를 보고잇는 이때이지만 이것은 廣田內閣의 財政經濟政策의 一部分에 不過하고 아즉도 그全貌가 確然히 表明되지안흔만큼 具體的으로 말할수업다는點 (二)이것은 一般의 利害關係가 至重한 問題인때문에 如何를 云謂하기는 時期尙早의 感이 잇는點 그러나 讀者로부터의 督促이 잇스므로 할수업시 이題目을 가지고서 말키로한것이다 그러타고해서 銀行에 預金한것보다 土地에 投資하여야 올켓다거나 그러치안타거나 하는等 무슨 斷定的判斷을 말하는것은 아니다 다만 오늘의 低金利時代에잇서 預金한 便으로보면 어떠한影響이 잇고 投資方面으로보면 어느影響이 잇는가 그大勢를 어떠케잡아야될가하는 程度를 말하려는것이다。

×

低金利라고 하면 그反面에잇서 所謂換物運動을 聯想케된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金利가 싸지면 돈(紙幣)을가지고 잇는것보다 『물건』을 가지고잇는것이 낫다고해서 換物運動이라고한다 그러면 무슨까닭에 低金利는 換物運動을 이르키는가 함을 말치안을수가 업게된다 即 低金利는 그 預金者에게 主는 代價的收入을 적게하는것이다 그럼으로 債務者의代價的 負擔에 對한 報酬가 되는만큼 그 預金者의 立場에서 보면 金利가 低下되면 그만큼 不利한것이오 債務者의立場으로서는 有利하게된다 그러나 이것은 債務者의 立場에서만 말한것으로 反對로 說明하면 그것이 利子가 헐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한便 低金利는 不利한 것이오 高利(이율)은 有利한것이다 그러니 低金利하라고한다)가 되는 것이다 이금리가 低率로 됨을 目的으로하는 것이다 ...

그런데 低金利政策에잇서 ... 金利를 低下케하는것은 그目的이 어데잇는가 하면 이에잇서는 다음과가튼 두가지의理由를 들것이다 ▲金利를 低下케하면는 저 그때의 金融이 緩慢하여야 한다 卽需給原則에 依하야 金融의需要보다 資金의 供給이 넉넉하여야될것이다 資金의 供給이 넘치는 時候에는 自然그利率이 低落될것이다 이것과 反對의境遇에는 金融의 供給이 不足하지만 이에 比하야 그것을 消化할資金需要가 적으면 이때는 金利가 低下되는 것이다

以上은 오늘에잇서 低金利가 大體어떠한 影響으로 되여잇슴을 槪說한것에 不過하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主로말하고자한 朝鮮內의 經濟的實情에 立脚하야 低金利에 依한 投資의 關係如何에 그 目標가 잇슴으로 보다 朝鮮經濟界로 돌리다。(續)

低金利로 된은 다시 統制的의 公債消化를 圖謀하야 日本은 公債消化를 爲하야 一般市中金利를 中止케하고 日銀利下와 指導的低金利로써 貸出하는 곳에는 自然 그中에잇는 資金의 公債投資로 나가는것 以上에서 投物運動이 生하는 것은 그結果가 低金利 ... 通貨의 膨脹을 誘致하야 金利의 低下하는것은 그結果 産業의 勃興을 보게되는것이 아니라 아니 이것이 곳 ... 人으로 ... 理由中의 큰것이다

重要産業統制法
朝鮮適用도準備
商工省에서그主旨點을發表
改正案議會에提出

【東京電話電通】商工省에서는現行重要産業統制法이 今年八月十日로서 그許可期限이 滿了됨으로 그措處에對하야 硏究한結果 이것을 改正하야 다시 五個年間 施行期間을 延長하기로 되엇다 二十四日 閣議에서 改正法律案을 今議會에 提出하기로 決定하고 同日左와如히 改正의 主旨及 改正要綱을發表하얏다

◇商工省發表

重要産業統制法은 來八月十日로 써 그有效期間이 滿了되나 産業界가 多少好調를 示하는今日에잇서도 適正한 統制助長을하지안흐며 안되는 同時에 消費者의 利益擁護에 遺憾이 업게하기爲하야 公益的見地에서 適當한 方策을 講함 必要가잇슴으로 左와如한 主旨로 改正法律을 今議會에 提出하기로되엇다 非難이잇섯슴에 鑑하야 今後貸出條件을 緩和하야 極力實需金額의 貸出을 實行할 方針의旨를聲明하얏다

一、統制擴充命令을 發하는 境遇에 잇서서 當該 産業의 許可制를 施行할수 잇는 길을 열엇고
一、共同販賣에 關한事業을 營業者各 트라스트를 取締할일
一、所謂公益規定을 一層具體的으로整備할일
一、本法의有效期間을 다시五個年間延長할일
一、將來本法을 外地에도 施行하여야될 境遇가잇슬것을 考慮하야 그에該當한準備를할일

適用까지는尙遠
相當한時日을要한다고
◇……總督府樂觀態度

重要産業統制法의 改訂은 特別議會上程키로 決定하고 同法은 公새로히 五個年을 延長하야 公益規定은 追加하는同時에 問題의 外地適用에 關하야 將來外地에 適用될것을 考慮하야 이에 備하다는方針을 밝혓는데이에 對하야 總督府에서는 重統法의 外地適用問題는 議會에서도 相當히 問題化할것으로 豫想되는바 이미 朝鮮側의 根本方針은 明白히하야 商工省當局도 諒解하고 具體的 問題에 對하야는 産業調査會의 答議를 거치기로되고 議會에서는 紛糾케되지 안흘것갓다 라고樂觀하는바 諸政一新의統制新時潮에 直面한만큼 同問題는 議會通過가 確實하나 外地延長施行까지는 相當한 期間을 要할것이라고한다

地方資金
大幅利下
運用委員會決定

【東京電話電通】大藏省預金部에서는 二十四日 午後資金運用委員會에서 地方資金에對한 融通利率의 大幅引下를 斷行하엿다 右는 馬場藏相의 低金利政策特히 農村方面의 金利負擔輕減의 方針에 基한것인데 今回利下를 適用할 地方資金은 金融總額十九億一千七百萬圓中實의 五割을 超한九億九千五百萬圓에 達하며 預金部의 利子收入減은 年額五百十九萬六千圓으로 平均利下率은 五厘二毛強이다 그리고 今回의 利下의結果 融通利率은最

▲地方資金團 利率도 各其 同利率로 引下 改正

預金部融資利下
運用委員會에서決定

【東京電話同盟】大藏省預金部에서는 二十四日 午後一時半 藏相官邸에서 今年度 第一回資金運用委員會를 開催하고 左의地方資金利率을 引下하야 最高一分二厘 最低六厘引下에 關한件 其他 四件을 附議原案대로 可決하얏다

一、融通未濟預金部 地方資金利率引下에 關한件=本委員會의協議를 거처서 融通하기를決定하고 預金部地方資金中 融通未濟分에 對하야 今年五月一日以降은 左와如히 融通利率을 引下함

右에依하야 經由機關의 貸付利率도 各其 同利率로 引下 改正

高三分八厘 最低三分二厘 外地는最高四分最低三分五厘로되엿다

中小商工
貸出利下
興銀積極的으로

【東京電話電通】日本興業銀行에서는 今般政府의 積極的低金利政策에 呼應하야 中小商工業에對한 貸金利를 有擔保 無擔保어느것이나 年利三四厘程度의利下를 斷行하야 最高 七分 最低六分으로하고 即日實施하기로되엇다 그러고 同行은 從來事業資金 就中 中小商工業資金 借入申込에 對하야 不圓滿하다는

國庫歲入出計
二月末現在額

【東京電話電通】大藏省發表=今年二月末現在 昭和十年度 國庫歲入歲出現計에 依하면

(單位千圓 △減)

	二月末	比前年同期
▲歲入		
經常部	二、二三四、二五三	六九、八六〇
臨時部	五〇〇、三二〇	△三三、三〇三
計	一、一三三、九〇〇	四、八二三
▲歲出		
經常部	九五七、八〇三	六〇二、〇三三
臨時部	五〇〇、五五五	△二八、七五八
計	一、三五五、一四五	三、四二二、一一四

으로 特히 經濟界의 晴雨計라고 하는 經常部歲入의 內容에 對하야 보면 租稅는 所得稅、關稅、營業收益稅、砂糖消費稅、織物消費稅等의 筆頭로 合計에잇서 前年同期에 比하야 四千百九十一萬六千圓의 增加이며 其他에잇서도 各各增加하얏는데 다만日銀納付金만이 公債賣却의 減少하엿기때문에 減少를 示하얏다 大體의 傾向으로는 아직軍需工業 外國貿易以來의 繁榮에 基하야 好影響을 주고잇다 即經常收入의 主要한 內容은 如左하다

租稅	六〇四、六六九	四四、九五六
印紙收入	八七、二〇三	一二六
官業及官有財產收入	一五三、二六九	四、二〇三
日銀納付金	三、九〇五	△三二、三一九
雜收入	一四〇、〇五四	一、七七三

米、雜穀消費
延年來減退數字

近年 朝鮮內 米消費激減의 理由로서 朝鮮內雜穀消費가 增大하는데對하야 當局에서는 粟의 輸入關稅를 設定하고잇는데 이제總督府調查에 依하면 朝鮮內의 雜穀消費는 米消費減退와 倂行하야 가티減退되고잇는데朝鮮內 民衆은 무엇을 食用하느냐함이 疑問되고잇다 한다 即朝鮮米의 人口一人當 消費는 昭和六年의 五斗二升一勺으로부터 昭和十年은 三斗八升三合七勺으로 減少하얏는데 粟、麥類、蜀黍、黍、燕麥、豆等十二種 合計消費는 六年의 一石三斗二升五合이 十年에는 一石一斗四升으로 減少되야 朝鮮米消費의 減退와 倂行하야 雜穀도消費減退를 示하얏다 米雜穀의累年人口一人 消費量은 다음과갓다(單位石)

	米消費	雜穀
昭和六年	〇、五二一	一、三二五
七年	〇、四一九	一、二九一
八年	〇、四一二	一、二三六
九年	〇、四〇〇	一、一九五
十年	〇、三八三	一、一四〇

外地地方資金

朝鮮普通地方資金	四、〇
朝鮮水害復舊資金	四、〇
朝鮮水害及其他公共團體罹災旱害救濟資金	四、〇
朝鮮產米增殖資金	四、〇
朝鮮水害及長期	四、〇
借替資金(二日)	四、〇
朝鮮水害及債務	四、〇
債還資金同	四、〇
朝鮮高利債借替資金	四、二
朝鮮農村及中小商工業關係元利	四、〇
據資金 同	四、〇
朝鮮政府補償不動產金融資金	四、六
▲他會計其他에 對한貸付金	
朝鮮華族保護資金	四、〇
朝鮮旱害救濟資金	四、〇
朝鮮元農工債券	四、〇
應募資金	四、二
四、朝鮮簡易生命保險 貸附金關係資金融通의件	

朝鮮에對한政府補償不動產金融基金 四、三
關東州、南滿洲鐵道附屬地에對한政府補償不動產金融資金四、三(但據置의分은除外함)

二、融通濟 低別條金部 資金利率引下에 關한件=今年四月末日現在 融通濟의 預金部資金中

一、日本內地地方資金分
融通利率三分八厘를超越하는것
二、外地地方資金分
融通利率年四分을超越하는것
三、他會計 其他에對한 貸附金에對하야는 別表대로融通
四、各其同利率만을引下함일

朝郵增資決定
新造船全部五隻
▲…森朝郵社長 談

森朝鮮郵船社長은 增資案 本期決算案 新船建造案等에 關하야 日本郵船 大阪商船의 諒解를 求코저 過般來 東上中이엿든바 二十五日午前七時四十五分 歸京하야 左와如히말하엿다

지난 十三日 大阪重役會에서 一千萬圓 增資가 正式으로 決定되여 三十日의 定時總會에 諮問케되엿다 增資株의 拂込徵收期는 總會後新重役會에서 決定케되엿스나 造船의 代價支拂과 比肩하야 大體第一回는 七八月頃徵收하게될듯하다 來年 四月에

朝鮮米輸送의移送
新形態整備計畫
船會社團體結成?

朝鮮米輸送體系의 再整備에對하야는 穀物協會聯合會가 三者協調主義임에 齋藤幹事長이 東上하야 日本內地荷主及船會社方面과 積極的으로 協調工作을 進行하고잇스나 一方朝鮮郵船의增資에 依한 輸送機能의 擴大强化에依하야 總督府의 朝鮮米輸送統制方針도 漸次具體化될 機運에잇스므로 朝郵大阪商船을 中心으로한 鮮米積取戰線의 統一도 船會社方面에서 考慮하고잇다 도內鮮荷主의 對立等으로한 利害關係의 對立等 米輸送의 新形態가 出來하기까지에는 相當한 波瀾曲折이잇슬것으로보이나 結局現在朝鮮米積取에從事하고잇는 船會社中에서 세레트된 船會社로서 當鮮航同盟會와如한 船會社團體와 內鮮荷主의 協調에依한 新運賃契約이 出來되여 此에依하야 新朝鮮米輸送體系가 産出될것이 안일가 觀測되고잇다

混砂白米
移入解禁
北海道長官에陳情

朝鮮穀物協會聯合會에서는 昭和八年六月 北海道道令으로써 移入禁止中의 混砂白米移入解禁을 이번池田前警務局長의 北海道長官에게 榮轉을 機로廿五日遞書로 府殖産을 거처서陳情書를 提出하야 그問題를 實現케하기로되엿다고한다

이問題가되여잇스나 이것으로 海運界政法의 統制도立案되여 海事行比에準한 法令이 制定될것으로 施되면은 朝鮮總督府에잇서서도 範圍도 廣汎할듯하다 이것이實現되면 ... 困難한 問題로서 早急히實現은안되리라한다

新船의建造計畫은

新船의建造計畫은 結局五千噸級 乃至四千噸級五隻을 新造키로 決定하고 第一船은 旣히浦賀造船과契約濟로서 來年四月中에는 完成될것이며 殘餘 四隻은 來年六、七、八、十一月의 不順序로 完成될것으로 大體는 三菱(二隻)浦賀三二隻과 船舶建造契約이 成立되엿다

增資에伴한 重役改選은 專務에는 朝鮮汽船의 廣瀨君이 오기로되엿다 其他大阪商船에서 二名 殖銀에서 一名 모다新重役은 下週許可가되다 日本內地海運界는 船腹不足으로 대단히 活況을 呈하고잇스나 政府는 今議會에 航路統制法及 不當競爭防止法을 提出할 模樣이나 이것은 要컨대 命令航路 定期航路의 保護에 잇스므로 其適用範圍도 廣汎할듯하다 이것이實施되면은 朝鮮總督府에잇서서도

濠洲關稅引上
神戶商議決議聲明

【神戶電話同盟】濠洲政府가 企圖하는 日本品輸入制限과 高率關稅強要에 對하야 神戶商工會議所에서는 二十四日午後 貿易部會를 開始하고 聲明書를 發表하야 濠洲政府에 反省을 求하는同時에 日本當業者에게 對하야는 今回의 日濠關係에 對하야 크게 壓迫을받는데 鑑하야 羊毛國內使用을 節約하며 同時에 그代用品을 使用普及할 猛運動을 이르키로 決議하얏다

日印改訂交涉
即開를要求中

【倫敦二十四日發同盟】倫敦駐箚藤井代理大使는 廿四日 午後三時半 外務省에 올드檢東部長을訪問하고 過般提議한 日印通商條約改訂交涉의 即開를要求하는同

朝鮮은四分以內

但 短期融通은함일
年度初에 委員會에 報告함일

一、融通의形式=日本勸業銀行、農工銀行、北海道拓殖銀行、産業組合中央金庫 朝鮮銀行 朝鮮殖産銀行 東洋拓殖株式會社

預金部는 融通低利資金의 利率을 全面的으로 引下하엿스나朝鮮關係의것은 四分以上의 低利資金全部四分以內에 引下되여이例外로서 不動產融資金五分三厘에서 四分六厘에 引下되엿스나 이것은 土地萬一般金利安의今日 큰影響은업스며 其他低利資金의 利下는 經由金融機關의 自己資金의利下와 相俟하야水利組合其他의 被融通者에게는 相當히 큰利益이될것으로 그効果는 期待되고잇다 又旣融通低利資金으로 土地改良資金 不良

朝鮮金融組合聯合會 又는 殖銀行에 對한 貸付金에依한 二、利率
가、日本內地關係 年三分五厘
나、外地關係 年四分
三、償還期限=一個年以內

水利組合救濟資金中에는 年三分八厘及 三分九厘의 低利의것도 잇스나此等은今回利下되지안엇다

昭和十一年度 朝鮮簡易生命保險貸附金關係資金을 左와如히 融通함일

一、融通金額 七百萬圓以內
二、融通의形式=朝鮮의 道債、府債、邑債 又는 朝鮮金融債券引受에 依하야 道는 右目的으로 하야 어든 資金을 朝鮮의公共利益을 爲하야 使用하며 又는 朝鮮의 公共團體 又는 營利를 目的치안는 法人 또는其他에 貸附함일
府邑 又는 朝鮮金融組合聯合會는 右에依하여 어든資金을 朝鮮의 公共利益을爲하야 使用함일
三、融通利率 五分六厘以內
四、償還期限 二十五年以內(五年以內據置期間을包含함)
五、短期融通資金融通에 關한件 米穀、小麥、蕎麥及 肥料保管資金으로 每年 八千萬圓을 限하야 左記條件에 依하

郵貯預入金額
前年보다一割六分增加

全朝鮮郵便局所에서 取扱한昭和十年度中의 郵貯預入金額은 一億三千二百四十四萬一千五百三十圓 또 拂戾金額은 一億二千八百二十四萬三千二百四十六圓인데 이것을前年度取扱高에比較하면預入金額은一割六分의 拂戾金額은 一割八分의各增加이엇다

今日財界 (廿五日)

◆米(單位石) 仁川期米 先限 三九、五〇 三 大阪期米 先限 三一、六六 三 ◎三等米(仁川) 一石 三三、〇〇 不變 正租(仁川)一等 一石 [illegible] 不變
◆金 [illegible] 一匁 [illegible]
◆株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公債 [illegible]

米日爲替少高

【上海廿四日發同盟】廿四日의 米日爲替는 前日에比較하면 一仙高 實二十八弗八十六仙으로 一仙高 賣二十八弗八十六仙으로 一仙高

經濟界消息

取引停止(一日)

(四月二十一日) 時計商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 十九番地 石川時計店 石川庄五郞

○加藤朝銀總裁任=【東京電話同盟】지난二月以來 滯京中이든 加藤朝鮮銀行總裁는 廿五日夜 東京을 떠나 朝鮮으로 歸任키로된바 同總裁는 五月下旬 或은六月上旬 다시 渡東할豫定이라고

○高山拓殖勤=【四日入京한高山東拓總裁는 今日中은 京城에 滯在할 豫定이라고

經濟寸鐵

東部에서는 殖産支店의 社金 橫領消費事件이 잇섯는데 이것은 業務監查制度의 缺陷이 잇는때문이라고

○ 그래서 이런事件을 未然에防止하라고 監查制度를 確立할 意向

○ 이것이야말로 소 일코 외양간 고친다는格

當限落高期待
前場 ...

前場 期米는 十八日부터 東新 十七圓과 百二十九圓間不過三十二圓幅에서 지긋지긋이保合을거듭한 ... 七圓臺는 돌아 九圓臺는 ... 人氣를一新할거리라는 ... 特別議會開幕後 實綿採各 업고 統制와增稅가 그形態를明케한다면 ...

難伸難押商狀

二十七日의 東京大阪當限納會는 高價取組이지만 大體無事 平穩할것이오 當落後 一高를期待하는 便도업는것이아니나 五月一日特別議會를 앞두고 産業統制의 增稅의 余波가 判明되기를期待

朝取實物取引

(實買高二〇〇)

▲大同電力新(…) ▲帝麻新(…) ▲寧素新(…) ▲石川島新(…) ▲朝鮮製鍊(…) ▲北鮮製紙(…) ▲朝鮮石油(…) ▲電氣化學新(…)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電通】休日을 압두고 強弱雙方의 氣迷가 相當하야無活氣이엇다
甲五分利 一〇一、二〇

臨迫한當限戰
穩靜裡에納會?

當地當限의 取組는 表面上一萬五千餘石바게아니되나 그裡面에 潛在한 取組까지 加한다면 적어도 三萬石以上에 達할것이 ...

京城無味

各地正米

期의買物이업시 閑散場面이엇는데 ㊉三等廿九圓十五錢 同四等廿八圓八十五錢

仁川無勢

買方總傍觀의態度로 거의無實買와 가튼閑散場

米期 不變의無勢

一圓四分利 不變 一〇三、一〇
二圓四分利
佛貨四分利 一九八、五〇

前場少弱 昨後場 阪堺三十二圓十五錢止와共히 二十九圓八十五錢에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二圓十七錢인二丁反落를 擴하고 二十九圓九十錢인 五丁高로 寄하야한後 阪地十七、八錢에서 保合하다 十八錢에 止하야 五錢高로 大引 ...

後場强保

前場과 不變의 廿九圓八十錢에 始하며 九十四錢까지 잇섯다가 九十三錢에 止하엿다

變質市勢難望
米界事情으로보면

變質期에 入하기前에 農家의 抱藏米가 現出할은 年中行事라할 ... 本年도 四、五月頃 ... 實物이 續出하야 一時反落을 告할것으로 豫期하엿든바이나 그러나 本年은 二年續의 凶作後임뿐아니라 數年來의 農家의 景氣가 顯著히 好轉하야 그다지 換金의 必要를 늣기지아니한 關係로 高米價가아니면 絶對賣却하지안켓다는 堅固한 方針을 取하고잇슴으로 春暖期에 直面된 今日에도 依然實情하고잇다 方今農村에 露積되어 잇는것은 農倉에 入庫하지 안흐면 集散市場으로 나올것은 事實이나 그러나 集散市場에 서賣買가 되다 할지라도 日本內地의 移出이 不振한 此際인 만치 結局中間商人의 손에 掌握되어 또한 繼續되기 十常八九일 으로 變質期의 市勢가 展開될 이라고는 當分期키難한 現象에 잇다 今後果如何?

朝取期米取組高

▲賣方 當限 ... 中限 ... 先限 ...
▲買方 ...

堂島前場賣買

▲賣方=東京側 中東側 地場東
▲買方=朝鮮側 乘恢地場 櫻井側

土金 石金 高價 買入 大邱本町 警察署前 金華堂 長電七一三番

買賣株高刺戟程度에 止하고 全面的活躍을 難期이것만은 事實일뿐더구나 東新가튼 投機株는 取引所制度에對한 特殊的 軟材料가잇스니 이點을 이저서는 안되리라말도 不無

米 當地當限戰은 納會에切迫하야 一段反撥을 示하리라고 한다 此는硬派의 觀測이엇다 ▲그러치마는 軟派의主張은持米側이 絶對賣惜하는 今日에 渡米蒐集의 困難도 업지아니하지마는 買方亦受米後의 處分이 困難할것임으로 受米를忌避하려할것도 事實이라고▲果然日本內地의 移出이 不振함을보아서 受米도 잘處分되지안을것을可期▲그러면 兩方의 서로困難한點이 업지아니

한만큼 結局合意賣買의 形式으로 大部分이 處理되지안홀가한다▲그럼으로 當限戰은平穩無事히 終了되고 말듯▲그런데 來月에 入한後에는 農家의 實物이 現出하야 一時實勢威壓을加할이라고市中商談이 濃厚▲此는 地方農家의野積에 對하야는 變質의念慮가 업지아니할 關係上 貯藏期間을 延長하여주지안는다는 說이擴頭▲此가 事實이라하면農家는 곳處分하지안호면 안될立場에잇슨즉 一時實物이 出할지도 亦未知▲野積의 數量이 그얼마나 되는지는몰으나 集散市場으로나오다할지라도 結局中間商人의손에 繼諸되지안올가 함이 問題

株式 繼續의保勢

前場伸悩 今前場도 依然保勢圈內로 大新은 不變의七十四圓五十錢 東新은 二十錢低인百二十九圓五十錢、日産은 十錢高인 六十七圓九十錢 鐘新百五

商況 (廿五日)

이번에 結成되다는 新輸送團體는 또 生産者權取를 엽마나 巧妙히하라는고

○ 利得爭奪의 相對物을 삼어 울 가지고 오然히 中間商人 조밥먹고 피똥 흘려지흔쌀

市場六感

株 强氣로서는 東新百二十七圓臺를限界로 一週餘를 底因하얏스니 當然히 當限落高가잇스리라고 期待▲그리하야議會에서別로 惡材料를 提供케되지안는限 低金利市勢를 우선 演出코야말것이라고主張▲弱氣는말하되 비록 事變直後와가튼 恐怖不安은 解消되엇다하나 정작産業統制와 增稅가 어떠한것인지 알수업는지금에 低金利만가지고 市勢의 順坦한上勢를 期할가보나?東新 百十九圓三十八錢 大底가아닌限 어되서던지 大底入이 잇서할것이라고反抗▲新株物色

釜山閑散

거의中途反落되야 二圓이엿은 閑散하나 必需品의 買物외에는 十錢高하엿 ... 는데 ㊉三等廿九圓三十五錢 四等廿九圓十錢 一等白米 十二圓四十錢

大邱不振

實行의惰弱과 定期의 新活況을 顯現한 全然不振에 ... 夏枯閑散期의 가트 場面이 엇는데 ㊉三等廿八圓七十錢 四等廿八圓四十錢 一等白米十一圓八十五錢

群山同調

實行增進을 期待하야 產地의 實情은 人氣로 市況底堅을 示한바 거의 全然保留傍觀으로 ◆三等廿九圓三十錢 四等廿九圓十五錢 一等白米十三圓

木浦不變

實物이 적으나 高價에는 買氣가업서 定期의 動向을 注視하는 모양인데 ㊉三等廿九圓三十錢 四等廿九圓十錢 一等白米十三圓

金·白·銀金 買賣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壹〇番地(小廣橋側) 電話本(2)三三一六番 振替京城五壹五四番 地方註文{代金引換販賣要送料先金

朝米取株 光一 康益商店 仁川府海岸町三丁目 京城府黃金町二丁目 金益證券株式會社 代表電話本局②五一八六番

金融 (廿五日)

◆海外經濟◆ 倫敦金塊 [illegible] 倫敦銀塊 [illegible] 紐育銀塊 [illegible] 米國 [illegible] 印度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米國 (廿五日)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市中金利◆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京城穀類◆ [illegible]

商品 (廿五日)

◆京城綿絲布市價◆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鐵油冲價◆ [illegible]
◆鐵神粕冲價◆ [illegible]
◆天津豆粕◆ [illegible]
◆日本麥粉市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價◆ [illegible]

國債 (廿五日)

◆朝取短期◆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合計 一〇、三二〇 累計 一〇一、一三二〇
◆東京現株◆ [illegible]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期米 (廿五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短期實物◆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商品 (廿五日)

◆大阪綿絲◆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絲◆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